

광 고

원양산업

제 1143 호

(2022년 3월 15일 발간)

창간 : 1972년 8월 1일

등록일자 : 1981년 8월 27일

등록번호 라-9183호 / 월간발행 (비매품)

Contents



협회소식

- 원양협회, 2022년도 정기총회 개최 / 4
- 2022년 해양원격의료사업, 원양어선은 신규 3척 포함 18척 / 4
- 항만 검역대응 절차 개정, PCR·격리대상 완화 / 5
- 3월의 수산물 “참치”, 할인행사 진행 / 6

■ 협회 주요 업무 추진 동향

/ 7

■ 요리 만들기

(참치포케)

/ 15



명예해양수산물 리포트

■ '22년 2월 보고 내용

/ 16



해외수산물정보

■ 참치어업 동향

- MGO 가격 급등 / 19
- 방콕 가다랑어 가격 하락, 만타 가격 안정세 / 19
- Européche, 어획량 오차 허용한도 총량의 10% 요구 / 20
- 1월 WCPO 선망선 어획량 강한 회복세 / 20

- 日, 2022년 1월 냉동참치 수입 통계 발표 / 21
- 日 2021년 냉동 눈다랑어 GG 수입 감소 / 22
- 日 냉동 눈다랑어 수입 급감 / 22
- 세이셸, 어업 투명성 이니셔티브 보고서 발표 / 23
- 日 도요시시장 눈다랑어, kg당 1,153 엔 / 23
- 세이셸 가다랑어 가격, 유류·환율 우려로 상승 / 24
- 세이셸-모리셔스 양자 수산협정 60일 연장 / 24
- 2021년 동부태평양 참치 어획량 9% 증가 / 25
- EPO 황다랑어, 연중 내내 중미 근처에서 산란 / 25
- 2021년 미국 참치캔 수입량, 2019년 수준 / 26
- 대서양 참다랑어 산란지, 미국 북부에 존재 / 26
- 미국 참치 자숙 로인 수입량 32% 감소 / 27
- 기후변화가 참치에 미치는 영향 예상보다 클 것 / 27
- 미국 선망선 태평양 조업 척수 지속 감소 / 28
- PNG “2021년 MSC 참치 12만톤 이상 어획” / 28
- ISSF, MSC 인증 관련 참치연승어업 가이드라인 발표 / 29
- Princes, EU 공급 참치캔 100% 책임 있게 조달 / 29
- 타이유니온 2021년 순이익 28.3% 증가 / 30
- 필리핀, 자국 참치 공장에 대한 국제 투자 모색 / 30
- 유럽의회, 필리핀 무관세 일시 철회 요구 / 31
- 아조레스제도 참치공장 건설 시작 / 31
- 전문가들 태평양 심해 채굴의 부정적 영향 경고 / 32
- 피지 수산부 장관, 참치 원어 확보 노력 / 32

Contents

■ 오징어어업 동향

- 포클랜드 일렉스 오징어 허가증 대부분 발급 / 33
- 中 냉동 오징어 2월 가격 상승 / 33
- 남미 보존 그룹, 오징어 보존 조치 필요성 촉구 / 34
- 日 2021년 냉동 오징어 수입 9만 5,927톤 / 34

■ 명태어업 동향

- 러시아 명태 H&G 가격 상승 / 35
- 러시아, 명태 고차가공 가속화 / 35
- 러-우크라이나 전쟁, 명태 필렛 가격 영향 / 36
- 러시아 극동 명태 어획량 34만 1,000톤 / 36
- 노레보 “현재 정상 운영…전쟁 여파 예측불가” / 37
- 日-러시아 수산 무역 일시 중단 / 37
- 러-우크라이나 사태, EU 명태·대구 시장에 치명타 / 38
- 러시아 냉동 어류 가격 환율로 인해 타격 / 38
- 美 수산업계, 러시아 수산물 수입 금지 요구 / 39
- 美 알래스카 명태 5일 시점 어획량 약 12만톤 / 39
- SWIFT 제재로 美-EU 명태 필렛 구매력 제한 / 40
- 美 알래스카 명태 어업, 필렛 생산량 증가 / 40
- 러시아 FSA, 호호츠크해 명태 MSC 인증 취득 / 41
- '22년 1월 러시아 냉동 수산물 철도 운송량 대폭 증가 / 41

■ 각국 수산 동향

- 美 FDA, 식품 전자이력 관리 강화 추진 / 42
- 美 2022년 수산물 가격 급등·소매 판매 위축 / 43
- 뉴질랜드, 수산물 전용 친환경 포장 개발 지원 / 43

- EU 대구 어업계, 노르웨이에 러시아 제재 동참 압력 / 44
- EU, 세네갈 수역에 EU 국경수비대 파견 제안 / 44
- 대만, 美 WRO 조치로 인해 노동착취 관련 규정 개정 / 45
- 日 어패류 가게 소비 감소 / 45
- 러시아, '21년 노르웨이에 수산물 1억 달러 이상 수출 / 46
- MSC, 강제 및 아동 노동 감사 대상 확대 추진 / 46
- 머스크 “中 수산물 주요 항구 혼잡 다소 완화” / 47
- 머스크, 러시아 오가는 컨테이너선 올스톱 / 47
- 타이유니온 “식물 기반 수산물 선두주자 목표” / 48
- 보스턴 수산 박람회, 코로나19 방역 조치 없이 개최 / 48
- 페루 '21년 11월 수산물 수출 감소 / 49
- FisheryProgress, FIP 인권정책 요구사항 완화 / 49
- 대서양대구·갈고리흰오징어 북극해서 발견 / 50
- 日 2021년 고등어 수출 17만 6,690톤 / 50

■ 쉬어가는 난 (시)

- 주머니 속의 바다 <정일근> / 51

■ 국내 수산 뉴스

- 해적 피해 다발지역, 안전조치 없이는 진입 불가 / 52
- 따뜻한 봄바람, 우리 수산물과 함께 하세요 / 52
- 3월 이달의 수산물로 참치, 명게, 미더덕을 선정 / 53
- 수산물 원산지 미표시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기준 강화 / 53
- 해양 플라스틱 오염 문제 해결 위해 각국 머리 맞댄다 / 54
- 제20대 대선 선상 투표율 95% / 54

원양협회, 2022년도 정기총회 개최

제8대 회장에 (주)동남 윤명길 회장 연임

우리 협회는 지난 2월 24일에 2022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안) 등 정기총회 의결사항을 서면으로 심의, 의결했다.

협회는 당초 이날 2022년도 정기총회를 대면으로 개최할 예정이었으나,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서면 결의로 대체했다.

협회는 사전에 각 안건을 서면으로 회원사들에게 알

린 후 회원사들의 의견을 취합해 지난해 사업실적 보고 및 결산을 의결하고, 올해 사업계획 및 예산을 확정했다.

아울러, 이날 임기가 만료되는 윤명길 회장을 제8대 회장으로 연임 의결하고, 임기가 만료된 최경삼 경영지원본부장 후임으로 부산지부 이형균 이사대우를 경영지원본부장(이사)으로 선임했다.



- ◇ 부산지부 이형균 이사대우 → 경영지원본부장(이사, 기획홍보부장 겸직)
- ◇ 기획홍보부 이성재 이사대우 → 부산지부장(이사)

2022년 해양원격의료사업, 원양어선은 신규 3척 포함 18척

상선·연구선 포함 20척 늘어난 140척

해양원격의료사업 서비스가 올해 20척 늘어난 140척으로 확대되었다. 이 중 원양어선은 기존 15척에서 신규로 3척이 선정되어 18척이다.

해양원격의료 시범사업은 장기간 운항하는 원양 선박에 승선하는 선원들도 위성통신을 통해 언제든지 의사의 응급처치 지도 및 건강 상담 등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사업으로 해양수산부가 2015년부터 부산대병원 해양의료연구센터와 함께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해양 원격의료 서비스 제공 대상 선박은 인공위성과 연결된 심전도 측정 장비와 검이경, 청진기 등 원격진료 장비를 지원받아 설치하여 부산대병원의 해양 원격의료센터와 위성통신으로 건강 상담과 응급조치를 실시간으로 제공받을 수 있다.

지난해에는 120척의 선박을 대상으로 13,783건의 서비스가 제공되었다.

우리 협회는 지난 2월 28일 해양수산부에 4개사 8척을 신규 사업 희망 어선으로 신청한 바 있다.

항만 검역대응 절차 개정, PCR·격리대상 완화

편승·입항 기간 15일 이상일 경우 PCR 음성확인서 제출 면제

중앙방역대책본부의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 검역대응 지침’ 개정에 따라 지난 2월 21일부터 원양어선의 검역 절차가 완화되었다.

항만 검역대응 절차 개정 사항은 아래와 같다.

△ (PCR 음성확인서 제출 기준) 기존 ‘21.2.24일 이후 해외에서 승선한 내·외국인에서 입항일 기준 14일 이내 해외에서 승선한 인원’으로 변경되었다. 예를 들어 3월 15일 국내 입항한 원양어선에 편승한 선원의 경우 편승일이 3월 1일 이전이면 선박 및 선원의 국적여부와 관계없이 PCR 음성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 (격리면제대상 조건) 기존 전출항지 출항일로부터 14일을 경과하여 입항하는 선박에 승선한 선원은 입항 후 작업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 격리면제가 가능했으나 이제 작업 여부와 관계없이 14일 경과 시 격리면제가 가능하다.

△ (승선검역 대상) 기존 검역법 상 대상(입항일 기준 선원 교대 등으로 14일 이내 승선자가 있는 선박 등)과 위험도 높은 선박(검역관리지역에서 입항하는 선박)이었으나 위험도 높은 선박이 제외되어 이제 검역법 상 대상만 해당된다.

△ (전수 진단검사 대상) 기존 대상 중 방역강화대상 국가 등에서 출항한 원양어선, 냉동냉장선, 수리선이 삭제되었다.

한편, 전반적인 해외 입국자의 격리 지침에도 변화가 생겼다. 지금까지는 접종 여부와 상관없이 해외 입국자는 모두 7일간 자가격리를 해야 했다.

이번 조치에 따라 3월 21일부터 국내에서 백신 접종을 완료했거나, 해외에서 접종하고 접종 이력을

등록한 사람은 해외에서 입국 시 자가격리를 하지 않아도 된다.

백신 접종 완료자 기준은 세계보건기구(WHO)가 긴급 승인한 백신의 2차 접종 14일 이후 180일 이내인 사람 또는 3차 접종자이다. WHO가 긴급 승인한 코로나19 백신은 화이자, 모더나, 아스트라제네카, 얀센, 노바백스, 시노팜(베이징), 시노백, 코비셀드, 코백신, 코보백스로 총 10종류이다.

국내에서 접종한 경우 접종력이 자동으로 등록되며, 해외에서 접종을 완료한 경우에는 보건소에 해외 접종 완료 이력을 제출해서 등록할 수 있다.

입국 시 예방접종력은 검역정보 사전입력시스템(Q-CODE)을 통해서 확인한다.

4월 1일부터는 해외에서 접종을 완료하고 접종 이력은 등록하지 않았더라도, 사전입력시스템에 직접 접종 이력을 입력하고 증명서를 첨부해 격리를 면제받을 수 있다.

격리 면제 제외 국가에서 입국하는 경우에는 현행 그대로 7일간 자가격리를 해야 한다. 현재 파키스탄, 우즈베키스탄, 우크라이나, 미얀마 등 4개국이 격리 면제 제외 국가로 지정돼 있다.

또한 모든 해외 입국자들은 입국 전, 입국 1일 차, 입국 6~7일 차에 한 번씩, 총 3번 PCR(유전자 증폭) 검사를 해야 했는데, 입국 6~7일 차에는 PCR 검사 대신 신속항원검사를 할 수 있게 됐다.

다만 단기 체류 외국인 등 자가격리가 아닌 시설격리를 하는 대상자는 입·퇴소 절차 등을 고려해 입국 후 6~7일차에도 현행 그대로 PCR 검사를 받아야 한다.

3월의 수산물 “참치”, 할인행사 진행

3월 3일부터 시작, 최대 36% 할인

“3월 이달의 수산물·참치데이(3.7) 맞은 슈퍼참치, 연중 가장 저렴하게 즐기세요.”

우리 협회는 동원산업(주)와 사조씨푸드(주) 등 우리 회원사들이 백화점, 대형마트 등을 통해 진행하는 참치 판촉 행사를 보도자료 배포, SNS 게시 등을 통해 적극 알렸다.

3월 7일은 ‘참치데이’로 매년 이 시기 할인 행사가 진행된다. 올해는 해양수산부에서 참치를 3월 이달의 수산물로 선정해 소비 촉진에 힘을 더했다.

동원산업은 3월 3일부터 9일까지 이마트 매장(영등포점, 분당점, 죽전점, 청계천점, 가양점 등)과 36% 할인된 가격으로 횡감용 참다랑어 모듬회 240g(뱃살 120g, 속살 120g)을 2만 3,800원에, 360g(뱃살 120g, 속살 240g)을 3만 4,800원에, 눈다랑어 뱃살회 240g을 1만 6,800원에 판매했다. 사조씨푸드도 동일한 기간 이마트 매장(성수점, 용산점, 자양점, 산본점, 성남점 등)에서 동일한 제품을 판매했다.

아울러, 동원산업은 동일한 기간 롯데마트 매장(제타플러스, 서초점, 은평점, 월드타워점)에서 횡감용 참치뱃살 모듬회 400g(참다랑어 뱃살회 200g, 눈다랑어 뱃살회 200g)을 35,800원에 판매했으며 3월 4일부터 매주 3일간(금·토·일) 현대백화점 무역센터점(1주차), 목동점(2주차), 미아점&더현대서울점(3주차), 신촌점(4주차) 순으로 북대서양참다랑어 해체시연 행사 및 30% 할인 판매 행사를 진행하고 있다.

우리 협회 이형균 경영지원본부장은 언론에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참치는 DHA, EPA 등의 오메가3 지방산, 비타민 B12·B3, 황산화 물질인 셀레늄

등이 많이 함유되어 있는 건강식품으로 특히 오메가3는 혈관 건강, 두뇌 발달, 치매·성인병 예방, 조울증 완화에 도움이 되며, 또한 비타민 B3·B12는 빈혈, 소화·신경계, 피부건강 유지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며 “이번 행사를 통해 몸에 좋은 신선한 참치를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우리 협회가 배포한 보도자료를 인용한 온라인 및 지면 보도는 서울파이낸스, 대한뉴스 등 15건이었다.

한편, 해양수산부가 배포한 이달의 수산물 보도자료는 연합뉴스, 매일경제 등에 보도되었다.

KOFA 원양산업협회
게시자: 원양어업 원양 - 3월 3일 오후 3:23 -

“3월 이달의 수산물·참치데이(3.7) 맞은 슈퍼참치, 연중 가장 저렴하게 즐기세요.”
우리 협회와 사조씨푸드, 동원산업이 함께하는 할인 행사가 진행되요.

<이마트(3.3~9)>
횡감용 참다랑어 모듬회 240g(뱃살 120g, 속살 120g)을 23,800원,
360g(뱃살 120g, 속살 240g)을 34,800원, 눈다랑어 뱃살회 240g을 16,800원... 더 보기



협회 주요 업무 추진 동향

경영지원본부

총무부

- 제15차 이사회 개최
 - 일시/장소 : '22.2.24 / 서면의결
 - 의결권행사 : 협회 임원 19인 중 18인 의결권 행사
 - 내용 : 보고사항 및 의결안건 심의 등
 - '21 주요업무실적 및 결산보고서, '22 사업계획 및 예산서, 협회 정기총회 전 예산 미성립에 따른 협회 기금 일시차입 추인의 건, 협회 직제규정 등 제규정 개정에 관한 건, 2022년도 정기총회 부의 안건 등 6개 의안 원안대로 접수 및 의결
- 2022년 협회 정기총회 개최
 - 일시/장소 : '22.2.24 / 서면의결
 - 의결권행사 : 30개사 중 28개사 의결권 행사
 - 내용 : 2021년 정기총회 의결안건 심의 등
 - '20 주요업무실적 및 결산보고서, '21 사업계획 및 예산서, 협회장 및 협회 비상근임원 선임에 관한 건, 협회 상근임원 및 고문 선임에 관한 건, 협회 노사위원회 구성에 관한 건 등 6개 의안 원안대로 의결
- 2021년도 결산보고서 감사수감 추진
 - 일시/장소 : '22.2.16 / 부산
 - 감사 : 승진수산, 정태
- 제27회 바다의 날 기념 유공자 포상대상자 추천 (해수부)
 - 추천자 3인
 - 국무총리 표창 : 동원산업 선장
 - 장관 표창 : 코삭교역 기관장, 신라교역 갑판장
- 회원사 변경사항 안내(전화원사)
 - 승진수산(주) 대표이사 변경
 - 대표이사 : 윤동호 ⇒ 강정봉
- 부경대학교 우수졸업생 협회장 명의 상장 및 부상 전수 조치
 - 학위수여 일시/장소 : '22.2.25 / 부경대학교
 - 포상 : 협회장 표창 및 부상 수여(30만원 상품권)
- 2022년도 무역협회 정기총회 참석
 - 일시/장소 : '22.2.23, 10:00 / 코엑스 컨퍼런스룸(4층)
 - 참석자 : 총무부 과장
 - 내용 : 2021년도 사업실적 및 결산 보고 / 2022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 심의 등
- 2021년도 연말정산 업무 추진
 - 임직원 '21 귀속소득 연말정산 증빙자료 징구 업무
 - 임직원 2021년도 소득 연말정산 업무추진
- '22.2월 원양어업경영자금 운영위원회 개최
 - 일시/장소 : '22.2.17 / 협회
 - 참석자 : 운영위원회 위원(6인)
 - 내용 : 3개사 10척 73.75억원 원안의결
- '22년도 협회비 부과추진
 - 1월분 업종별회비, 1/4분기 월회비, 1차분 기본운영회비
- 원양어업경영자금 관련 향후 사용 추정금액 제출
 - 해수부 원양산업과 요청에 따라 원양어업경영자금 금리인하 관련 사용 추정금액 자료 제출
- '21 귀속 임직원 연말정산 소득세 신고(서초세무서)
 - '21년도 귀속 소득분 임직원 각 개인별 연말정산 및 기타소득세 등 소득자료 신고 및 지급조서 제출 (3.10한)
- '22. 2월분 임직원 원천세 신고
- '22. 건강보험 적용 보수충액 신고(건강보험공단)

- '22년 적용분 건강보험 납부 금액 변경에 따른 보수총액 신고(적용기간 : '22.4월 ~ '23.3월)
- '22년 1월분 원양어획물 생산실적 분석

구 분	생산량(M/T)	전년비(%)
합 계	33,501	91
- 참 치	25,555	86
· 횡감용	3,510	117
· 통조림용	22,045	83
- 명 태	0	-
- 오징어	6,975	121
- 공 치	0	-
- 기 타	971	69

기획홍보부

- 원양어업 역사박물관 건립 관련 업무추진
 - 이영호 민주당 해양수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면담
 - 일시/장소 : '22.2.15, 14:00/ 김영진 의원실
 - 참석자 : 노창식 보좌관, 협회 이성재 이사
 - 내용 : 원양어업 역사박물관 건립, 민주당 대선공약 포함 업무협조
- 원양산업지 2월호 제작, 발송(310권)
 - 협회소식 5건(ODA 사업 사전 타당성 조사 착수보고회 개최, 3월 이달의 수산물로 참치 선정 예정, 남태평양 전쟁이, 올해 11,540톤까지 어획 가능, 2021년 원양어업 통계조사 보고서 발간, 우리 원양어선, 태평양에서 한 달간 표류중인 조난자 구조)
 - 국내소식 5건, 해외수산물정보 65건
 - 명예해양수산관 보고사항, 협회 업무동향 등 정리, 교정 및 편집
- 원양산업 정보&뉴스 제공(143호 2.16, 144호 2.23, 145호 3.2, 146호 3.8/ 회원사 임직원 카카오톡 및 이메일 송부, 홈페이지 게시)
 - 제143호 정보 16건(세이셸-모리셔스 양자 수산협정 60일 연장/ 남미 보존 그룹, 오징어 보존 조치 필요성 촉구/ 대만, 노동착취 관련 규정 개정)
 - 제144호 정보 19건(유럽의회, 필리핀 무관세 일시 철회 요구/ 美 러시아 수산물 수입 금지 촉구/ 러시아 FSA, 오호츠크해 명태 MSC 인증 취득)
 - 제145호 정보 23건(Europ che, 어획량 오차 허용 한도 총량의 10% 요구/ 러-우 사태, EU 명태·대구 시장 치명타/ 日 공해 쾡치 조업, 올해도 보류?)
 - 제146호 정보 17건(세이셸 가다랑어 가격, 유류·환율 우려로 상승/ 러시아 어업 MSC 인증 취소 가능성 제기/ MGO 가격 급등)
- 보도자료 및 기고문 작성·홍보
 - 가. 협회, 2022년도 정기총회 개최(2.24, 수산전문지)
 - (지면) 수산인신문(2.28, 3면), 한국수산신문(4면), 수산신문(4면), 어민신문(5면)
 - (인터넷) 한국농어민신문(2.25), 농수축산신문(3.2)
 - 나. 3월의 수산물 “참치”, 할인행사 진행(3.2, 일간지, 수산전문지, 인터넷 언론사)
 - (지면) 한국수산경제 2면, 수산인신문 8면, 한국수산신문 6면, 수산신문 3면
 - (인터넷) 대한뉴스(3.2), 서울파이낸스(3.4), 머니S(3.7), 내외일보(3.2), 식약일보(3.3), 한국면세뉴스(3.4), 푸드경제신문(3.2), 푸드아이콘(3.2), 우먼컨슈머(3.2), 미디어나비(3.2), 푸드투데이(3.3), 한국농어민신문(3.2)
 - * 해양수산부 3월 이달의 수산물 선정 관련 보도자료: 연합뉴스, 매일경제, 뉴시스, 부산일보, 경북매일신문, 대한급식신문, 한국외식신문, 현대건강신문 등 게시
- 다. SNS 게시(페이스북 3건, 인스타그램 3건)
 - 3월 이달의 수산물·참치데이(3.7) 할인 행사/ 해양수산부 이달의 수산물 홍보 게시물 공유/ 참치요리 레시피
- 협회 비상근 임원 선임 및 노사위원회 재구성 통보(3.11, 회원사)
 - 정기총회에서 임원 선임 및 노사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을 차기 회장에게 위임·의결, 선임 내용 안내 및 취임승낙서 요청

회원지원부

- 한국해양수산연수원 관련 업무추진
- 가. 2022년도 제1차 정기이사회 참석
 - 일시/장소 : '22.2.15, 14:00 / 연수원
 - 참석자 : 해양수산연수원장의 이사회 위원 / 경영지원본부장
 - 내용 : 21년도 사업 및 예산결산(안), 직제규정 개정(안) 등 심의
- 나. 제1차 임원추천위원회 참석
 - 일시/장소 : '22.2.17 / 서면회의
 - 참석자 : 임원추천위원회 위원 / 경영지원본부장
 - 내용 : 비상임감사 후보자 모집방법, 심사방법 및 추천방법 의결
- 다. 22년도 오션폴리텍 어선5급·6급 교육과정 개선을 위한 산학협의회 참석
 - 일시/장소 : '22.2.23, 13:00 / 연수원
 - 참석자 : 해양수산연수원 및 관련 업·단체 / 회원지원부 과장
 - 내용 : 오션폴리텍 교육과정 운영계획 및 산학협력금 지원 등 협의
- '22년 해양원격의료지원 시범사업 관련 업무추진
- 가. '22년 해양원격의료지원 시범사업 설명회 참석
 - 일시/장소 : '22.2.16, 14:00 / 영상회의
 - 참석자 : 해양수산부 선원정책과 및 관련 업·단체 / 회원지원부 부장, 사원
 - 내용 : '22년 해양원격의료지원 시범사업 추진계획 설명 등
- 나. 2022년 해양원격의료지원 시범사업 참여 희망선박 제출(선원복지고용센터/2.28)
 - 희망선박 4개사 8척
- 2022년 제1차 수산물 유통발전위원회 참석
 - 일시/장소 : '22.2.18 / 서면회의
 - 참석자 : 해수부, 수품원 등 수산물 유통발전위원회 위원 / 협회장
 - 내용 : '22년 수산물 유통발전 시행계획(안) 심의 등

- 한국선급 제60회 정기총회 참석
 - 일시/장소 : '22.2.18 / 서면회의
 - 참석자 : 한국선급 회원 / 협회장
 - 내용 : 2021년도 결산(안) 심의
- 2022년 2월 해양사고 예방정보 송부 (회원사/2.14)
 - 중앙해양안전심판원, 2월 해양사고 현황 및 주요 사고 사례 등
- 2022 선원정책 시행계획 수립 알림(회원사/2.14)
 - 해양수산부, '22년 선원정책 시행계획 추진방향 및 추진과제 등
- 해난사고유자녀장학재단 기선정 장학생 및 신규 장학생 장학금 신청(원양노조/2.16)
 - 기 선정 장학생 및 신규 장학생 신청서류 제출 요청
- 선박안전 관련 업무추진(회원사/2.24, 28)
 - 2022년도 봄철 해양사고예방 대책 시행 알림
 - 2022년 3월 해양사고 예방정보 송부
- 2022년 IMO 바다의 의인상 후보자 추천 요청 (회원사/2.24)
 - 인명구조·해양오염방지에 기여 후보자 추천 요청
- 수산물가공업(선상가공업) 신고철저 요청 (회원사/3.2)
 - 신고누락, 변경사항 미신고 등에 따른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
- 2022년 해사안전시행계획 알림(회원사/3.3)
 - 해사안전 전략, 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별 시행계획
- 22년 선원임금채권보장기금 운용계획 제출 (해수부/3.3)
 - 임금채권보장기금 잔액 및 지급계획 등
- 우크라이나 선원의 선원교대 및 승선계약 관련 IMO 회람(No.4519) 공지(회원사/3.4)
 - 우크라이나 정부, 자국선원의 선원교대·승선계약 관련 협조요청
- 외국인선원 근로조건 개선안 행여부 확인을 위한 노사정 합동점검 관련 안내(회원사/3.7)
 - 3~4월 중 예정된 노사정 합동(승선)점검 관련 준비 철저 요청

- 임원 변경에 따른 관계기관 이사 변경 요청
 - 한국해양안전진흥협회 당연직 이사 변경 요청 (해양안전진흥협회/3.11)
 - 한국해양수산연수원 비상임 이사 등기변경 서류 제출(해양수산연수원/3.11)
 - 최경삼 전무 → 이형균 이사
- 코로나19 관련 업무추진
 - 국적선사 소속의 편승자 정보 확인 (부산검역소/2.16, 2.21)
 - 12명(한국 10명, 인도네시아 1명, 베트남 1명)
 - 내국인선원 승선 전 PCR 검사 확인 조사자료 제출(해수부/2.18)
 - 1개사 1척 10명 PCR검사 확인
 - 코로나19 자가검사시트 구매예정량 조사 결과 알림(해수부/2.14)
 - 구매 수요 총 8,550회분 ('22.2.21일부터 4.1일까지 사용수요)
 - 해외입국자 PCR 음성확인서 제출기준 등 현행화 안내(회원사/2.18)
 -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 검역대응 지침(제 11-1판) 개정 안내(회원사/2.21)
 - 방역강화국가 등 조정사항 안내(회원사/2.25)
 - 국적선사 소속의 편승자 정보 확인 (부산검역소/3.2)
 - 1명(인도네시아 1명)
 - 원양어선원 코로나19 예방접종 실적 제출 (해수부/3.11 기준)
 - 1차 접종(810명) / 2차 접종(729명) / 3차 접종 (209명)
 - 해외입국자 PCR 음성확인서 제출기준 일부 개정 알림(회원사/3.3)
 - 상호주의 원칙에 따른 코로나19 격리입원치료비 지원 국가 안내('22년 3월)(회원사/3.3)
 - 해외입국자 방역교통망 의무대상 조정 알림 (회원사/3.7)
 - 항만입국 선박 및 선원의 검역·격리 조치 관련 개선 건의(회원사/3.10)

- 입항 선박 확진선원 발생 시 해당 선박·선원의 검역 조치 등 완화 건의
-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 검역대응 지침(제 11-1판) 수정 안내(회원사/3.11)
- 해적관련 업무추진
 - 서아프리카 해역 해적위협 정보 전파 (회원사/2.14)
 - 청해부대 37진 호송전대 장병격려 기탁서 송부 (청해부대/2.16)
 - 해적피해예방법 개정사항 안내 및 홍보를 위한 리플릿 배포(회원사/2.16)
 - 청해부대 선박호송작전 재개 알림(회원사/2.16)
 - 서아프리카 해역 해적사건 정보 전파 및 경계활동 철저 요청(회원사/2.21)
 - 싱가포르해협 해상강도 사건현황 전파 및 경계활동 철저 요청(회원사/2.23)
 - 2022년 3월 청해부대 선박호송작전 계획 알림 (회원사/3.8)
 - 서아프리카 해역 해적위협 정보 전파 (회원사/3.8)
 - 2022년 3월 청해부대 선박호송작전 계획 변경 알림(회원사/3.11)
- '22.1월분 원양어획물 수출실적 확인

구분	누 계(2022년 1월)			
	수출물량 (kg)	전년 대비	수출금액 (\$)	전년 대비
통조림 용참치	4,955,986	47.0%	8,309,909	60.7%
훈제용 참치	1,038,665	87.2%	13,101,250	151.5%
저서 어류	191,400	335.0%	5,445,516	660.0%
오징어류	107,021	-	309,462	-
새우류	164,960	412.4%	234,205	466.8%
기 타	48,000	34.8%	124,600	32.7%
합 계	6,506,032	54.3%	27,524,942	116.7%

해외협력본부

해외협력 1부

- 현장-연구(정책) 협업을 위한 업무협의회 참석
 - 일시/방식 : '22.2.16, 14:00 / 화상회의
 - 참석자 : 해수부, 국립수산물과학원, 원양업계 / 협회 협력12부
 - 내용 : 옵서버 프로그램 운영 협조 요청, EM 개발 시범사업 지원, 폐가방류 보고 철저 당부 등
- 국제옵서버 내실화 방안 전문가 자문회의 참석
 - 일시/장소 : '22.2.18, 15:00 / 화상회의
 - 참석자 : 부경대학교 이상철 교수 및 학생연구원 / 협회 협력12부
 - 내용 : 옵서버 승선지원사업 지원 강화, 운영지침 개정 등 프로그램 내실화 방안 제시
- 제1차 참치연승어업위원회 개최
 - 일시/장소 : '22.2.25, 16:00 / 화상회의
 - 참석자 : 참치연승어업 출어사 / 협력1부
 - 내용 : OPRT 강제노동 워크숍 발표자 선정, 과학원 업무협의회 속조치, 해상전재 분담금 정산 논의 등
- ICCAT EMS(전자모니터링시스템) 작업반 회의 참석
 - 일시/장소 : '22.2.28, 19:00 / 화상회의
 - 참석자 : EU, 미국 등 ICCAT 회원국 / 협력1부
 - 내용 : SCRS EMS 작업 결과, EMS 우선순위 논의
- ICCAT 패넬2 회기간 회의 참석
 - 일시/장소 : 2022.3.1~4, 18:00 / 화상회의
 - 참석자 : EU, 미국, 일본 등 패넬2 회원국 / 협력1부
 - 내용 : 2022년 한국 참다랑어 조업계획서 승인 등
- OPRT 강제노동 워크숍 참석
 - 일시/장소 : 2022.3.7~8, 13:00 / 화상회의
 - 참석자 : 일본, 대만, 중국 등 OPRT 회원국 / 협회 협력1부
 - 내용 : 정보 교환, 강제노동 이슈 논의 등

- 지역수산물관리기구(RFMO) 보존조치 이행 지원
 - (WCPFC) MTU 검사 실적 조사 / 태평양 출어사
 - (WCPFC) '22/'23어기 FFA 등록 안내 / 태평양 출어사
 - (WCPFC/IATTC) 1-2월 태평양 눈다랑어 어획 할당량 소진실적 확인
 - (CCSBT) '21/'22어기 최종어획실적 및 이월량 제출 / 해수부, 과학원
 - (ICCAT) 해상전재 허용 운반선 추가 목록 제출 / 해수부
- 참치어업 지원사항
 - (선박등록) 원양어업 허가 사항 국제수산물기구 적시 반영 요청 / 참치업계
 - (참치선망) 수역별 조업일수 소진현황 조사
 - (참치선망) 조업일수 추가 구매 및 전배
 - (CCSBT) '22년 1월 어획실적 및 3월 양륙계획 조사 / CCSBT 출어사
 - (CCSBT) '21/'22어기 최종어획실적 및 이월량 확인 요청 / CCSBT 출어사
 - (참치연승) 2022년 전자모니터링(EM) 시범 사업 (2척) 추진을 위한 선박 일정 조사
 - 미측 ICCAT 수역 바다거북 혼획 저감 관련 질문에 대한 답변(안) 제출 / 해수부

해외협력 2부

- 대 러시아 업무추진
 - 가. 북양트롤 업무추진
 - '22년도 러수역 조업쿼터 배정 기준 알림 (2.15/북양·대구·꽁치위원장)
 - 제31차 한·러어업위원회 합의 결과 알림 (2.16/북양·대구·꽁치위원장)
 - '22년도 러수역 감독관 승선경비 납부 알림 (2.21/북양·대구위원장)
 - '22년도 러수역 업종별 조업쿼터 배정결과 제출 (2.23/해수부)

- ' 22년도 러수역 업종별 조업쿼터 배정 및 입어로 납부 알림(2.23/북양·대구·꽁치위원장)
- ' 22년도 러수역 조업계획 및 감독관 계약 관련 서류 제출 알림(2.23/북양·대구위원장)
- 러수역 입어로 10% 조기납부에 대한 의견 조회(2.24/북양·대구·꽁치위원장)
 - 우크라이나 국경 사태로 인하여 입어로 10% 조기 납부에 대한 의견 조회
-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 관련 일일상황 파악/보고(2.25/해수부)
- 감독관 승선료 납부 알림(2.28 / 러수산청, 동북극 국경수비대)
- 감독관 승선계약 체결정보 제출 및 전자문서형태로 계약체결 요청(2.28, 3.2 / 북양·대구위원장, 동북극국경수비대)
- 22년도 북양트롤 및 대구저연승 어선 러수역 허가 가장 신청서류 제출(3.3 / 해수부)
- 제31차 한·러위 합의의사록 별첨 제공 및 수정 의견 조사(3.4 / 북양·대구·꽁치위원장)
- 나. 꽁치붕수망 업무추진
 - '22년도 러시아모니터링센터(CFMC) VMS 장비 등록 신청 안내(2.17/꽁치위원장)
 - '22년도 러수역 조업 계획 및 조업선 연락처 제출 알림(2.24/꽁치위원장)
 - ' 22년도 러수역 꽁치쿼터 재배정 결과 알림(2.22/꽁치위원장)
 - 제1차 꽁치붕수망어업위원회 결과에 의거 업계 신청량을 반영한 쿼터 재배정 결과 알림
 - 러수역 입어 계획 및 통역관 육상근무 허용 요청(3.7 / 사할린국경수비대)
 - 러수역 CFMC VMS등록 업무추진
- 다. 대구저연승 업무추진
 - 대구저연승 입어로 납부알림(3.11 / 대구위원장)
- 제1차 꽁치붕수망어업위원회 개최
 - 일시/방식 : '22.2.18, 14:00 / 협회 부산지부
 - 참석자 : 각 사 대표 / 해외협력2부장 외 1명
 - 내용 : NPFC수역 과학조사 옵서버 승선대상선박

- 재조정 / ' 22년도 러수역 꽁치쿼터 배정 / 노사위원회 위원 원양물산 김영일 대표 선정
- 대리제재 관련 업무추진
 - 가. 대리시아 상황관련 금융상담창구 동향 알림(2.28 / 북양·대구·꽁치위원장)
 - 나. 러시아 송금처 정보 제출(3.2 / 해수부)
 - 국적선 및 합작선 입어로, 감독관 승선경비 등 러시아 송금 정보 제출
 - 다. 대리시아 제재에 따른 애로사항 및 건의사항 조사 및 제출(3.7 / 해수부)
 - 러시아 제재 및 결재관련 애로사항
 - 거래대금 송금불가, 러국적선 유류지원 허용
 - 대정부 건의 및 협조사항
 - 국적선 입어 지원, 스위트프 제재시 정부차원의 대안요망 / 3자 지불방식 가능방식 검토요청 / 러수산물 지속수입 및 러선박 국내항구이용 지속 허용 / 원산지·위생증명서 사본 통관처리 요청
- 오징어어업관련 업무추진
 - 가. 우리나라 오징어어업현황 제출(2.24 / 해수부)
 - BBNJ 대비 해구별 오징어어업현황 제출
 - 나. 공해 전제관련 주의사항 알림(2.25 / 오징어위원장)
 - 포클랜드 규정에 의거 공해조업 보고 및 입항전제 의무 미준수할 경우 어획 부진시 포클랜드 정부에 요구하던 입어로 환급이 환급 또는 감액될 수 있는 사항 알림
 - 다. 채낀기 어획동향(2.24 기준)
 - (누계) : 5,276톤(잠정), 적당평균 176톤
 - * 전년 6,320톤 대비 83% 수준
 - * 채낀기 : 29척(허가장 수령, 공해조업), 1척(몬테비데오 체항수리)
- 지역수산물기구 업무추진
 - 가. 북태평양수산물위원회(NPFC) 업무추진
 - 꽁치붕수망어선 오징어 부수어획 자료 제출(3.10 / 해수부)
 - 2019년 8척, 2021년 9척
 - 제7차 NPFC 연례회의 참석자 명단 제출(3.11 / 해수부)

나. 북서대서양수산기구(NAFO) 업무추진

- 2022년도 쿼터 전배 완료
(3.8 / 에스토니아어업협회)
- 전배금액 : USD28,000

○ 원거리해역 대응 시범사업 관련 업무추진

- '22년 원거리해역대응 시범사업 민간어선내 방역 강화 협조요청(2.23 / 한성기업)

○ 원양산업 관련회의의 업무추진

- '22년도 원양산업 관련회의의 개최사업 2차 보조금 교부신청서 제출(2.17 / 해수부)
- '22.2.24일자 확정

○ 해외어장 자원조사 조사사업 업무추진

가. '22년도 해외어장 자원조사 조사사업 수요조사 결과 제출(3.2 / 해수부)

회사	선박	수역	어종	시기
예담교역	91태백	북태평양 공해	빨강 오징어	22.5.1 ~8.18
원양물산	102금양			22.5.10 ~8.20

나. 원양산업 관련 회의개최 경비 집행 처리
(3.4 / e나라도움)

부산지부

○ 공인차량계량소 업무추진

- 총 75개사 590건(2.1~2.28) 계량

○ 부산지역 부회장단 회의 개최

- 일시/장소 : '22.2.17, 12:00/송도공원 중식당
- 참석자 : 협회장, 협회 부회장사, 부산지부장
- 내용 : 2022년 협회 업무계획 보고

○ '22년도 부산권 냉동창고 향운노조 임금인상 및 부대 근로조건 협상 타결

- 국민연금, 건강보험, 산재기금

구 분	현 행	합 의
국민연금	총 노임의 3%	총 노임의 4.5%
건강보험	총 노임의 2.2%	총 노임의 3.92%
산재기금	수령노임의 2%	수령 노임의 1%

- 다품종 및 사이즈 선별비

- 20-40종류 : 기본노임의 75% 적용
- 41종류 이상 : 기본노임의 100% 적용

나. 부산권 냉동창고 근로자 산재보험관리기구 및 복지위원회(연금+건강보험) 이사회

- 일시/장소 : '22.2.9/서면결의

- 참석자 : 냉동창고 화주 및 노조 등 11명(부산지부 이사)

- 내용 :

- (산재) '21.2월 산재보험 대상자 확정 신고
- (복지) '21.2월 국민/건강보험 대상자 확정 신고

○ 부산해경 정보과에서 방문

- 일시/장소 : '22.3.11, 14:00/부산지부

- 참석자 : 강동혁 정보관, 부산지부 이사

- 내용 : 원양어업 현황 및 동향 문의 등

○ 원양어선 입출항현황 조사 보고(부산항만청)

- 입항 : 3개사 3척(북양트롤, 참치연승2, 참치선망1)

- 출항 : 3개사 3척(참치연승2, 참치선망1)

○ 각종 확인 업무

- 원양어업용선수품 무환반출 확인업무

- 원양어획물 양륙신고 확인업무

- 수출확인업무

해외수산협력센터

〈국제협상지원팀〉

○ 회의 참석

가. CAOFA 절차규정(RoP) 수립 회의

- 일시/장소 : '22.2.8. / 화상회의

- 참석자 : 외교부, 해수부, KMI, 극지연구소, 협력센터 원태훈 전문관

- 내용 : CAOFA 절차규정 수립 논의

나. NPFC 태평양 쾅치 MSE 작업반

- 일시/장소 : '22.2.21~22. / 화상회의

- 참석자 : 해수부 국총과 김정례 주무관, 수과원, 협력센터 원태훈 전문관

- 내용 : 태평양 쾅치 HCR, MSE 수립 절차 논의



다. CCAMLR HoD 회의

- 일시/장소 : ' 22.2.24. / 화상회의
- 참석자 : 해수부 김현태 국장, 국총과 김정례 주무관, 협력센터 원태훈 전문관
- 내용 : MPA 특별회의 개최 논의

라. 해수부-WMU-KMI 공동주최 IUU 어업 근절 워크숍

- 일시/장소 : '22.2.15 / 화상회의
- 참석자 : 해수부, 세계해사대학, KMI, NGO, 협력센터 양재걸 전문관
- 내용 : IUU 어업 근절을 위한 국제협력 방안 논의

<해외진출지원팀>

○ 원양산업종합정보시스템운영

가. 소프트웨어사업 과업심의위원회 개최

- 일시/장소 : ' 22.2.16, 14:00/ Zoom 영상회의
- 참석자 : 위촉 위원 6명, 협력센터 이희진 팀장, 서규혁 행정관
- 내용 : '22년 원양산업종합정보시스템(OFIS) 유지보수 용역 과업내용 심의 및 확정

나. 원양산업 뉴스 14건, 원양산업동향 2월호 업로드

다. 인도네시아 원양산업관련자료, 투자환경보고서 배포 및 OFIS 게재(신라교역, 국립수산물연구원)

○ 명예해양수산물 제도 운영

- 명예해양수산물 활동보고서 OFIS 등록 6건

○ 해양수산물 신규 ODA 사업 제안 설명회 참석

- 일시/장소 : ' 22.2.3, 16:00/ Webex 영상회의
- 참석자 : 해수부 국총과, KMI ODA센터 등 해양수산물 ODA 사업 시행기관 담당자 15명
- 주요내용 : 신규 ODA사업 신청 관련 안내사항 공유 및 질의응답

○ 원양산업 통계조사 사업

가. 2022년 원양산업 실태조사 관련

- 실태조사 용역 입찰공고
- 사전규격공개(2.9.), 공고일(2.15~2.25)

나. 원양어업 생산동향 작성

- 21년 12월분 원양어업생산동향 작성 및 OFIS 업로드

○ 전문가 초청 교육 개최

- 일시/장소 : ' 22.02.23 15:00/ 세종 마이스센터
- 초청강사 : 박영선 심판변론인사무소 박영선 대표
- 참석자 : 해외수산물협력센터 직원 9인
- 주요내용 : 국제법의 특징, 외교적 특권, 국제회의 참여시 유의점 등





참치포케



❖ 이렇게 준비하세요

- 재료 : 오이 1/4개, 아보카도 1/2개, 적채 1/6개, 방울토마토 8개, 병아리콩 2T, 라임 1조각, 레몬 1조각, 샐러드용 야채 1컵, 현미밥 1/2공기, 오리엔탈드레싱 1T, 딜 1줄기, 견과류 1T

<참치 마리네이드 재료>

참치 등살 필렛 200g, 레몬즙 1t, 소금 1t, 후추 1t, 딜 1줄기

❖ 이렇게 만드세요

- ① 참치를 깍둑썰기 해 올리브오일, 레몬, 소금, 후추, 딜을 넣고 마리네이드 한다.
- ② 샐러드용 야채는 한입크기로 손질하고 적채와 아보카도는 채 썰고, 오이 동그랗게 썰고, 방울토마토는 반으로 자른다.
- ③ 그릇에 현미밥 -> 2의 손질된 샐러드와 야채를 둘러 담고 가운데 참치와 레몬을 올린다.
- ④ 빈, 공간에 병아리콩과 레몬, 견과류를 올리고 오리엔탈드레싱을 뿌려 완성한다.



명예해양수산물 리포트(2월)

김점봉 세네갈 명예해양수산물



김점봉
명예해양수산물

가. 세네갈-기니비사우 어업 협약 갱신

- 세네갈 수산해양경제부 장관 Alioune Ndoeye와 기니비사우의 장관 Mario Siano Fombe는

화요일 다카르에서 양국 어업협정을 위한 의정서를 갱신함.

- 동 의정서로 세네갈 영세 선박 및 상업용 선박은 기니비사우 수역에서의 조업을 재개할 수 있으며, 영세 선박의 경우 총 250척(40 마력 200척, 40~60 마력 50척), 상업용 선박의 경우 연간 갑각류 1,200톤, 두족류 1,000톤, 회유어 1,500톤 조업 및 참치조업 선박 15척/년이 허용됨.
- 한편, 세네갈은 어업면허 수수료를 기니비사우 정부에 지불하고, 그 외에 수산 또는 해양 훈련 학교에서 기니비사우 어업인을 대상으로 전문분야를 교육할 계획임.

나. ADB-세네갈 정부, 1,830억 CFA 규모 재정협정 체결 (1.27)

- 1.27(목) Akinwami Adesina 아프리카 개발은행 총재는 Amadou Hott 세네갈 경제개발협력부 장관과 4개의 재정협정에 서명.
- 협정 내용은 경제회복, 일자리 창출, 중소기업 지원 및 민간투자확대, 농업 및 광업 지역 개발, 중소기업 유통확대, 여성 기업인 지원(23.3억 CFA) 등이 있음.

다. 참치가격 동향

어종	규격(파운드, lbs)	가격(유로/톤)
가다랑어	3.4kg	1,378
	1.8kg	1,333
	1.5kg	1,197
황다랑어	10kg	2,032
	3.4kg	2,032
	1.8kg	1,333
눈다랑어	10kg	1,378
	3.4kg	1,378
	1.8kg	1,333

라. 유류가격 동향

공급	가격	유종	조사일
다카르항	492 유로/MT	경유	'22.2.25

김종태 피지 명예해양수산물



김종태
명예해양수산물

가. 피지 근해 연승어업 현황

- 2월말까지 약 3주간 회당 2.5~3톤 정도의 일시적 어획이 있었으나 3월 초부터 현재까지 조황이 좋지 못한 상태임.

- 계속되는 유가인상·어획난조로 각 선주들은 현재부터 입항선 기준 3월 말까지 항내묘박을 하고 있는 추세.

나. 참치가격 동향

어종	규격	가격(\$/톤)	기타
날개다랑어	10kg 상	2,900	로인가공용(PAFCO)



다. 유류가격 동향

공급	가격	유종	조사일
TOTAL	862달러/MT	M.G.O	'22.3.10

오시영 사모아 명예해양수산관



오시영
명예해양수산관

가. 어업 동향

- 금월 사모아 연근해 및 쿡아일랜드 어장에서의 연승선 조업은 날개다랑어 0.3~0.6톤, 황다랑어·눈다랑어 0.1~0.3톤 가량.

나. 코로나 관련 동향

- 아메리칸 사모아 코로나 누적 감염자는 현재 343명이며, 2월 25일부터 현재까지 모든 학교 및 공공단체 모임 금지.
- 필수 사업은 오전 5시부터 오후 6시까지 제한 영업을 시행하며, 오후 9시부터 다음날 오전 5시까지 통행금지.
- 스타키스트 사모아 통조림 공장은 2주간 가동이 중단되었으며, 3월 중순 가동 재개 여부를 결정할 예정.
- 아메리칸사모아 방역 상황:
 - 모든 입국자는 미국 내에서 5일 전 코로나 검사를 받고, 하와이에서 탑승 전 72시간 내에서 재검사 음성 확인을 받아야 하며, 입국 전 탈로파 패스에 등록해야 한다.(5세 이하는 검사 제외)
 - 모든 입국자는 지정된 장소에서 3일 동안 격리. 음성자는 격리 해제되며 양성자는 5일간 격리 의무를 시행하고, 이후 자가 격리.
 - 모든 하와이 출국자는 3차 백신 접종 확인서 제출 시 별도 검사 없이 비행기 탑승 가능.

- 영업금지 업종 : 실내·실외 스포츠, 극장, 체육 시설, 미장원, 이발소, 네일숍, 개인보트, 낚시 선박임대, 공공수영장, 자동차 세척영업, 빙고 게임, 거리모금활동, 사적·공적 레크레이션 행사.
- 식당은 10인 이내 및 포장만 허용됨.
- 항공 및 선박은 사전 정부 허가 필요.
- 주유소, 택시, 버스 24시간 영업 가능.

다. 참치가격 동향

어종	규격	가격(\$/톤)	기타
황다랑어	라운드	2,550	
눈다랑어	라운드	2,350	
가다랑어	라운드	2,350	

라. 유류가격 동향

공급	가 격	조사일
Clipper, Oil	\$2.86(gallon)	'22.3.7

윤정환 뉴질랜드 명예해양수산관



윤정환
명예해양수산관

가. 유류가격 동향

회사	종류	가격	조사일
Z	MGO	\$1,126/MT	'21.2.23
	LMFO	\$911/MT	

나. 어류가격 동향

어종명	사이즈	가격(달러/톤) /FOB 기준	기타 (회사명)
Squid	2L	3,050	Sea Jho Co LTD.
	L	3,350	
	M	3,250	
	2M	2,950	
	S	3,000	
	2S	-	



이윤홍 가나 명예해양수산물



이윤홍
명예해양수산물

가. 수산 분야 이해관계자 어업 관리계획 초안 승인

- 지난 2월 초 수산 분야의 이해관계자들은 가나 수산 분야의 지속 가능한 관리와 발전을 위한 어업 관리 5개년 계획 초안을 승인.
- 채택된 신규 계획은 2022~'26년 계획으로, 지난 2015~'19년 이전 계획 시행 과정의 한계를 해소할 것으로 기대 중.
- 수산위원회 관계자 Rebeca Sackey Mensha는 어업 노력을 연간 지속가능 수준으로 맞추는 것, 자료 수집 개선, 생물 지식 강화, 어업 법률의 적절한 시행, 어구에 대한 지식 강화, 장비 규정 정비 등이 관리계획 개발의 목적이라고 설명.

나. 참치가격 동향

어종	규격(kg)	가격(US\$)/톤	기타
황다랑어	10kg 상	1,800	
	10kg 하	1,440	
가다랑어	3.4kg 상	1,350	
	1.8kg 상	1,300	
	1.5kg 상	1,150	
	1.5kg 하	1,100	

다. 유류가격 동향

공급	가격	유종	조사일	기타
양상급유	860달러/kl	M.G.O	'22.2.28	
항만급유	910달러/kl	M.G.O	'22.2.28	

정승화 파푸아뉴기니 명예해양수산물



정승화
명예해양수산물

가. MSC 인증 확대 재추진

- Justin Ilakini 신임 임시 수산청장과 현 수산협회 회장 Mr. Sylvester Pokajam은 미팅에서 MSC 인증 확대 의지를 재확인.
- 파푸아뉴기니는 현재 참치 부문에서 MSC 인증을 보유 중이나, 수산청은 바다가재와 새우 부문 인증도 취득하길 원함.

나. PNG 진출 참치캔 업계의 반발

- 소식통에 따르면 PNG의 조업일수(VD) 비용으로 인해 타국에 비해 이점이 없다는 점으로 인해 PNG 진출 참치캔 업계의 불만이 큰 상태.
- 최대 업체인 필리핀 RD, 마제스티 등 여러 업체가 조치가 없을 시 영업을 포기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는 중.

다. PNG-중국 수산 관련 협정 체결

- PNG 수상, 수산청장이 베이징 올림픽 참관을 위해 중국을 방문 중 수산 관련 협정을 체결함.
- 중국의 PNG 투자가 언급되고 있으나 현실성이 없는 호주 자극용 계획으로 평가받는 중.

라. 어류가격 동향

어종	단가	기타
새우	4.5달러/kg	베트남 수출(20kg 이상/pcs, FOB)

마. 유류가격 동향

공급	가 격	유종	조사일
TWL Logistics Ltd	0.948달러/리터	Diesel	'22.3.4

〈계재순서 : 명예해양수산물 성명 가나다순〉



MGO 가격 급등

국제유가 급등 지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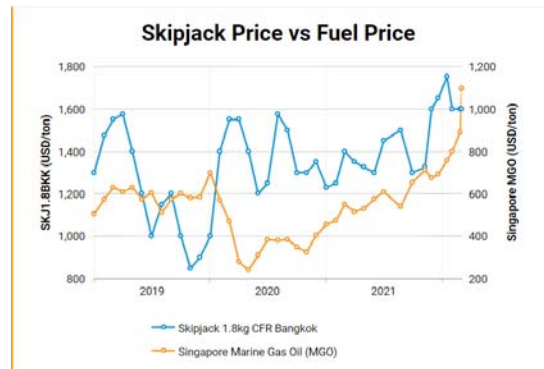
지난 4일 기준 싱가포르 MGO 가격은 톤당 1,096 달러로 3월 초 톤당 890 달러 대비 23% 상승했다. 선망선 선주는 참치 1톤을 어획하기 위해 712.4 달러를 연료비로 지불하게 될 것이다.

국제 유가는 미국이 러시아산 석유 수입을 금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이란 핵 협상이 지연되고 있다는 소식에 지난 6일 139.13 달러까지 치솟은 이후 125.19 달러에 거래를 마감했다.

뱅크오브아메리카(BoA)는 러시아의 석유 수출이 차단되면 하루 500만배럴 이상의 공급이 감소해 유가가 배럴당 200달러까지 오를 수 있다고 전망했다.

현재 방콕에서 가다랑어는 톤당 1,600 달러에 거래되고 있다. 중서부태평양에서 방콕으로 운송하는데

소요되는 비용 300 달러, 연료비 712.4 달러를 감안하면 587.6 달러로 다른 비용(허가비용, 인건비 등)을 지불해야 한다.



* 기사 출처: Atuna, 2022년 3월 7일자

방콕 가다랑어 가격 하락, 만타 가격 안정세

방콕 톤당 1,600 달러 수준

태국 방콕으로 가는 참치캔용 가다랑어 가격이 하락세를 보이는 반면, 에콰도르 만타의 가다랑어 가격은 여전히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다.

방콕으로 운반된 냉동 가다랑어 원어의 2월 CFR 가격은 톤당 1,600 ~ 1,620 달러를 기록했다. 태국 가공업체들은 3월 톤당 1,500 달러까지 가격을 낮추길 원하나 판매업자들이 서부태평양의 어획량 부족으로 인해 다시 가격 인상을 추진하고 있는 것

으로 알려졌다.

만타의 가다랑어 가격은 톤당 1,625~1,725 달러로 1월 대비 다소 상승했다. 관계자는 매년 이맘 때 어획량이 많은 에콰도르 남부와 페루 수역의 해수 온도가 낮아 어업이 부진한 것이 원인이라고 설명했다.

* 기사 출처: Undercurrent News, 2022년 2월 10일자



Europêche, 어획량 오차 허용한도 총량의 10% 요구

EU 어업통제시스템 개정 논의 중

EU는 어업통제시스템 개정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논쟁의 대부분은 어획 추정에 집중되고 있다.

Voces 전무이사는 Orthongel이 제작한 영상을 공유하며 어획량(특히 열대성 다랑어)을 정확하게 추정하기 어려운 이유에 대해 설명했다.

첫째, 열대성 기후에서는 특히 많은 양의 어획물을 신속하게 양망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식용에 부적합하게 된다.

둘째, 참치를 브라인수에 투입하는 작업이 빠르게 진행되는데 바다에서 어창까지 불과 몇 분밖에 걸리지 않는다. 해당 작업 진행 중 어획된 어종의 구분은 시각적으로 추정되나 부정확한 경우가 많다. 특히 눈다랑어와 황다랑어 치어는 매우 유사하기 때문에 구분이 어렵다. 냉동 후 눈다랑어와 황다랑어의 구분은 더욱 어렵다.

그 다음 어획물은 아프리카와 같은 열대성 다랑어

항구에 신속히 하역된다. 이러한 어획물은 유럽 이외의 지역에 양륙되기 때문에 공식적으로 무게를 측정하지 않는다. 따라서, 양륙 시 신고하는 물량도 추정치이다. 정확한 물량을 알기 위해서는 참치캔 공장의 매매 기록을 참조하면 되는데 이렇게 되면 어획량 보고 기한을 넘기게 된다.

Voces 전무이사는 “분류되지 않은 채 양륙되는 열대성 다랑어의 경우 오차 허용한도를 현행 어종별 10%가 아닌 총 어획량의 10%로 변경해야 한다”며 “EU가 발트해 어업에 이러한 규정을 적용하고 있어 이러한 시도는 새로운 접근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환경단체들은 오차 허용한도 완화가 인도양 황다랑어 등 취약 어종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주장한다. 2월초 NGO들은 유럽 당국에 오차 허용한도를 완화하지 말아달라는 서한을 보냈다.

* 기사 출처: Atuna, 2022년 2월 24일자

1월 WCPO 선망선 어획량 강한 회복세

지난해 5월 이후 최고치

1월 중서부태평양 참치선망선 어획량은 지난달 대비 15% 증가한 12만 309톤으로 지난해 5월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어획량은 지난해 9월 바닥을 친 후 서서히 회복되고 있다.

가다랑어 어획량이 크게 증가했다. 1월 가다랑어 어획량은 9만 7,735톤으로 지난달 대비 2만 7,521톤 증가했다. 일일 어획량은 25톤으로 지난달 20톤에 비해 5톤 증가했다.

대형 황다랑어 어획량은 지난달 대비 절반 수준인 1만 4,810톤에 불과했다. 그러나 2019~2021년에 비하면 대부분의 월간 어획량 대비 높은 수준이다.

소형 눈다랑어 어획량은 다시 한 번 감소해 일일 어획량이 1톤 수준이다. 이는 2020년 9월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다.

* 기사 출처: Atuna, 2022년 2월 25일자



日, 2022년 1월 냉동참치 수입 통계 발표

1월 총 9,235톤 수입

2022년 1월 일본 냉동참치 수입 통계		
어종·국가		(단위: 톤)
날개다랑어	한국	113
	대만	625
	바누아투	-
	기타	15
	소계	754
황다랑어	한국	221
	중국	47
	대만	603
	필리핀	123
	인니	-
	미국	-
	바누아투	148
	피지	23
	키리바시	29
	마셜	551
	기타	564
	소계	2,309
눈다랑어	한국	11
	중국	177
	대만	1,372
	세이셸	103
	바누아투	138
	기타	135
	소계	1,936
남방참다랑어	한국	449
	대만	95
	호주	-
	소계	544

* 기사 출처: 일간수산경제신문, 2022년 3월 7일자



日 2021년 냉동 눈다랑어 GG 수입 감소

필렛 수입 증가했지만 단가 상승

일본의 2021년 냉동 눈다랑어 GG(아가미, 내장 제거) 수입량은 4만 3,019톤으로, 2020년 수입량 대비 1만 7,005톤(28%) 감소했다.

반면, 냉동 눈다랑어 필렛(로인) 수입은 2021년 1만 2,604톤으로 2020년 대비 2,264톤(22%) 증가했다.

품귀현상으로 인해 단가는 GG의 경우 kg당 777 엔('21년 대비 31% 상승), 필렛 1,527 엔(21% 상승)으로 상승했다.

* 기사 출처: 일간수산경제신문, 2022년 2월 24일자

'15~'21년 일본 눈다랑어 수입량 및 단가

(단위 : 톤, kg당 엔)

부문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선어	18,735	19,757	15,333	13,556	11,732	8,527	7,199
냉동	199,231	202,804	194,363	186,121	181,449	183,110	177,192
합계	217,966	222,561	209,696	199,677	193,181	191,637	184,391
단가(선어)	1,039	1,050	1,178	1,073	1,053	948	949
단가(냉동)	720	741	898	824	757	599	785

日 냉동 눈다랑어 수입 급감

수입량 1,937톤...지난 10년간 최저

일본 재무성 무역통계에 따르면 1월 참치류 수입은 선어·냉장품 255톤(지난해 동월 대비 50% 감소), 4억 3,500만 엔(33% 감소)/ 냉동품 9,235톤(30% 감소), 104억 7,900만 엔(15% 감소)/ 가공품 3,583톤(1% 감소), 23억 300만 엔(15% 증가)을 기록했다.

냉동 눈다랑어 GG(아가미, 내장 제거) 수입량은 1,937톤(33% 감소)으로 2,000톤 미만을 기록했다. 최근 10년간 최저 수입량은 지난해 11월 기록한 2,343톤이었으나, 그보다 약 400톤 가까이 감

소했다.

대만산 수입량은 1,372톤(9% 감소)으로, 지난해 12월 대비 877톤 감소했다. 중국산 수입량은 177톤(70% 감소)을 기록했다. kg당 단가는 987 엔(59% 상승)으로, 지난해 12월 단가인 kg당 956 엔 대비 상승했다. 냉동 필렛의 1월 수입량은 354톤(55% 감소), 단가 kg당 1,622 엔(36% 상승)으로, 마찬가지로 수량 감소, 단가 상승 추세를 보였다.

* 기사 출처: 일간수산경제신문, 2022년 3월 7일자



세이셸, 어업 투명성 이니셔티브 보고서 발표

연승선 자료 모호

세이셸은 수산 부문의 투명성과 관련된 개선 사항을 보여주기 위해 두 번째 어업 투명성 이니셔티브(FiTi)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는 개선되었지만 여전히 연승선 어획 자료가 불완전하고 중국 및 대만과의 거래(수산협정 등)에 대한 정보를 아직 공개하지 않았다.

2020년에 세이셸은 외국 어선의 자국 수역 조업을 허용하는 4건의 계약(EU, 모리셔스, 대만(대만 원양 참치연승선주·수출업자 협회), 중국(Top Fortune International))과 세이셸 국적 어선이 제3국의 수역에서 조업할 수 있는 2건의 계약(마요트섬(프랑스 해외 영토), 모리셔스)을 체결했다.

해당 보고서에는 세이셸 수역에서 조업이 허가된 대형 선박이 180척이라고 기재되어 있지만 정확한 수치는 아니다. 2019년에는 68척(연승 63척, 선망선 1척, 지원선 4척)이었다.

이외 세이셸 국적 선박 어획량(불완전), 외국국적 선

박 어획량(선망선 정확, 연승선 부정확) 등이 보고서에 담겼다. 보고서는 어업 투명성 이니셔티브 홈페이지에서 볼 수 있다.

2020년 세이셸 수역 조업 허가 대규모 어선 (단위 : 척)				
구 분	연승선	선망선	지원선	총계
대만	66	-	-	66
세이셸	44	13	4	61
중국	8	-	-	8
스페인	2	15	5	22
프랑스	1	10	2	13
모리셔스	-	3	1	4
한국	-	2	1	3
이탈리아	-	1	-	1
포르투갈	2	-	-	2
총 계	123	44	13	180

* 기사 출처: Atuna, 2022년 2월 14일자

日 도요스시장 눈다랑어, kg당 1,153 엔

1월 7,245마리 상장...공급 개선 당분간 어려워

일본 도요스시장의 2022년 1월 냉동 눈다랑어 대형(40kg 이상) 상장 마릿수는 총 7,245마리(지난해 동월 대비 6% 감소)이다.

2022년 1월 중간가격은 1,156 엔(39% 상승)으로, 2021년 12월 중간가격(1,153 엔)에서 거의 변동이 없었다. 저가품 가격은 12월 900 엔에서 1월 950 엔으로 상승했다. 관계자에 따르면 저가품 눈

다랑어는 일부 하자품을 제외하면 이미 1,000 엔에 근접한 가격에 거래되고 있다.

1월 일본에 도착한 운반선이 없고, 2월 도착분은 6,350톤에 그칠 것으로 전망되며, 3월 입항 예정인 운반선 또한 만선이 아니기 때문에, 공급 개선은 당분간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 기사 출처: 일간수산경제신문, 2022년 2월 16일자



세이셸 가다랑어 가격, 유류·환율 우려로 상승 1,324 달러 수준

현재 세이셸 가다랑어(1.8kg 이상) 현물 가격은 한 달 전보다 4% 상승한 톤당 1,225 유로(1,324 달러)이다. 1,215~1,230 유로(1,315~1,332 달러)에 거래가 이뤄지고 있다. 방콕 가격 1,600 달러, 만타 가격 1,725 달러에 비해 여전히 낮은 수준이다.

소식통은 톤당 50~75달러 더 상승할 수 있다고 말했다. 에콰도르 참치캔 가공업자는 EU 구매자와의 약속된 물량을 확보하기 위해 EU 원산지 규정을 준수하는 EU 선망선 선주가 어획한 가다랑어에 기꺼이 더 높은 비용을 지불할 용의가 있다.

인도양 선망선단은 급등하는 유류 가격 외에도 환율, 물류 문제에 직면해 있다. 선박용 경유(MGO)는 달러로 지불해야 하고 어획된 참치는 주로 유로로 판매하고 있다. 현재 달러 대비 유로 환율 상승으로 선주들은 유류 구매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또한 유류 수급 부족 현상이 발생할 경우 인도양 하역항에 유류 공급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세이셸은 병커선에 연료 수급을 의존하고 있다.

소식통은 최근 마다가스카르에서 참치캔 생산을 시작한 Pêche & Froid Ocean Indien 공장은 타이유니온(세이셸 IOT 공장) 및 Princes(모리셔스 PTM, Marine Road 공장)와 원료 조달 경쟁이 일어날 확률은 거의 없다고 설명했다.

타이유니온과 Princes는 원재료가 마다가스카르로 가는 상황을 피하기 위해 선망선 선주들에게 더 나은 조건을 제공할 것으로 예상된다.

황다랑어(10kg 이상) 가격은 톤당 2,215 유로(2,400 달러)로 5% 인상되었다.

* 기사 출처: Atuna, 2022년 3월 7일자

세이셸-모리셔스 양자 수산협정 60일 연장 허가비 30% 인상 전망

세이셸과 모리셔스는 각국 어선이 서로의 해역에서 조업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양자간 수산협정 체결 관련 추가 문제 논의에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해 협정을 60일 연장했다.

기존 협정은 2월 19일 만료될 예정이지만 연장으로 인해 조업 활동은 중단 없이 계속될 것이다.

2017년 재협상된 협정에 따라 양국은 선망선 15척, 연승선 20척, 지원선 7척이 상대국 EEZ에서 조업할 수 있었다. 당시 모리셔스 국적 어선의 조업에 따른 보상은 연간 선망선 척당 11만 달러, 연

승선 척당 3만 달러로 설정되었다. 반면 온라인 뉴스 사이트 Seychelles Nation에 따르면 세이셸은 연간 선망선 2만 4,000척 달러, 연승선 3만 달러를 지불하기로 했다.

이번 잠정 협정에는 양국의 어선 및 지원선의 허가비가 30% 인상될 것이라고 명시되어 있다. 또한, 양국은 선망선 선주가 환경 및 연구 비용으로 총톤수당 2.25 유로(2.57 달러)를 지불하기로 합의했다.

* 기사 출처: Atuna, 2022년 2월 10일자



2021년 동부태평양 참치 어획량 9% 증가 두 번째로 높은 어획량 기록

전미열대참치위원회(IATTC)에 따르면 지난해 동부태평양 참치 어획량은 64만 7,192톤으로 2020년 대비 9% 증가했으며 역대 최고인 2019년에 이어 두 번째였다. 10년 평균 59만 6,852톤과 비교하면 5만톤 이상 많다.

2021년 1분기 어획량은 매우 낮은 수준이었고 상반기까지 어획량은 2020년 수준 이하였지만 4분기에 어획이 좋아지며 2021년 전체적으로 좋은 어획 수준을 기록했다.

황다랑어 어획량은 2021년 내내 매우 좋았다. 어획량은 25만 1,471톤으로 2015년 이후 가장 많았다. 멕시코 선망선단의 황다랑어 어획량은 2020년 대비 6,000톤 증가했으며 동부태평양 총어획량에서 43%를 차지했다.

황다랑어 어획량이 가장 많이 증가한 선단은 FAD를 사용하는 에콰도르 선단으로 2020년 대비 1만 2,000

톤 가까이 증가했다. 또 다른 FAD 선단인 파나마 선단의 어획량은 6,600톤 증가한 2만 9,729톤으로 5년 내 가장 많았다.

가다랑어 어획량이 높은 수준을 기록했지만 동부태평양에서 가장 큰 조업 능력(총용적량)을 보유하고 가다랑어를 주 어종으로 조업하는 에콰도르 선단의 가다랑어 어획량은 2020년 대비 5,000톤 감소했다. 그러나 황다랑어 어획량 증가가 가다랑어 및 눈다랑어 어획 감소를 상쇄하기 충분해 전체 에콰도르 어획량이 안정적으로 유지되었다.

멕시코, 파나마, 베네수엘라, 미국 등 대부분 선단들의 가다랑어 어획량이 증가했다. 베네수엘라는 어획량은 3만 2,176톤으로 2020년 2만 3,490톤 대비 8,686톤 증가했다.

* 기사 출처: Atuna, 2022년 2월 11일자

EPO 황다랑어, 연중 내내 중미 근처에서 산란 산란 대부분 27~29°C에서 발생

멕시코 언론사 Oportimes 보도에 따르면 멕시코-에콰도르 FTA 협상에서 멕시코가 참치캔과 관련해 에콰도르 국적 어선이 자국에서 어획하고 에콰도르 캔 가공공장에서 가공한 것에 대해서만 인정하는 것을 요구하고 있다고 한다.

반면, 에콰도르는 타 국적의 선단과 운반선에서 하역된 참치를 사용할 수 있도록 원산지 기준 개방을 요구하고 있다. 주된 이유는 에콰도르가 원산지 기준에 해당되는 참치의 전량을 주요 시장인 EU에 면세 혜택을 제공받고 수출하기 때문이다. 만일 멕시코가

참치 원산지 기준을 계속해서 요구한다면, 에콰도르는 원산지 기준을 충족한 상태로 유럽에 수출할 참치가 부족해지게 된다.

멕시코인들은 자국 참치 산업이 이미 번성하고 있어 에콰도르 제품이 시장에 넘쳐나는 것을 경계하고 있다. 멕시코 항구에 하역하는 중서부태평양 어획물 운송업체는 에콰도르에도 하역하고 있다. 에콰도르의 낮은 생산 비용을 고려할 때 원산지 기준이 개방된다면 멕시코 가공업체에게 큰 위협이 될 수 있다.

* 기사 출처: Atuna, 2022년 2월 10일자



2021년 미국 참치캔 수입량, 2019년 수준 평균 수입가격은 상승

지난해 미국의 참치캔 수입량은 2020년 대비 31% 감소한 11만 2,184톤으로 2019년 수준에 머물렀다. 분기별로 보면 시간이 지날수록 하향 안정화 되었다.

참치캔 톤당 평균 FOB 수입가격은 4,555 달러로 최소 5년 내 최고치를 기록했다. FOB 조건은 구매자가 운임을 부담하기 때문에 운임이 평균 수입가격에 반영되지 않는다.

국가별로 보면 2021년 태국산 수입량이 2019년 대비 5,000톤(20피트 컨테이너 2,247대 분량) 감소하며 가장 크게 감소했다. 다른 모든 아시아산 제품도 수입량이 감소했다. 필리핀산은 2019년 이후 수입량이 눈에 띄게 감소하고 있다. 베트남산과 인도네시아산도 2019년에 비해 감소했다.

베트남산 수입 가격이 6,360 달러로 가장 높았다. 날개다랑어 참치캔 수입 증가로 이러한 현상이 발생

했을 가능성이 높다.

멕시코산 수입량은 2020년 대비 25% 감소했지만 2019년과 비교하면 2배 이상이다. 평균 수입가격은 가장 저렴했다.

Mexican Trade Kept At A Hight

US: Import Of Canned Tuna in M/T value in USD
Top 10 Origins (full year)

	2019		2020		2021		Change %	
	M/T	FOB	M/T	FOB	M/T	FOB	M/T	FOB
Thailand	70,710	\$4,374	102,416	\$4,287	65,331	\$4,548	-36%	6%
Mexico	6,920	\$3,744	19,340	\$3,208	14,561	\$3,344	-25%	4%
Vietnam	13,785	\$5,704	15,543	\$6,290	10,411	\$6,360	-33%	1%
Indonesia	10,668	\$4,004	11,571	\$3,822	8,980	\$4,241	-22%	11%
Philippines	5,353	\$4,482	3,235	\$4,257	2,039	\$4,007	-37%	-6%
Ecuador	1,824	\$4,692	3,269	\$4,260	3,321	\$4,131	2%	-3%
Costa Rica	1,578	\$4,157	3,143	\$4,922	2,286	\$6,124	-27%	24%
Maldives	986	\$5,953	860	\$5,986	868	\$5,843	1%	-2%
Spain	801	\$4,423	807	\$5,250	1,034	\$4,336	28%	-17%
Peru	496	\$2,895	1,070	\$3,282	393	\$4,029	-63%	23%
Others	2,210	\$5,599	2,649	\$5,607	3,590	\$4,643	36%	-17%
Grand Total	115,332	\$4,499	163,903	\$4,356	112,814	\$4,555	-31%	5%

Source: NOAA

Powered by Atuna Analyst

* 기사 출처: Atuna, 2022년 2월 17일자

대서양 참다랑어 산란지, 미국 북부에 존재 Slope Sea 산란지 존재 인정하고 연구 및 관리에 포함해야

지난해 학술지 Canadian Journal of Fisheries and Aquatic Sciences에 실린 논문에 따르면 Slope Sea에 대서양 참다랑어의 주요 산란지가 있다.

Slope Sea는 미국 대륙붕과 걸프스트림 사이 대서양에 위치해 있다.

이 연구는 Slope Sea에서의 산란이 어획과 기후

변화에 직면한 대서양 참다랑어에게 추가적인 탄력성을 제공할 수 있다고 결론지었다. 연구진은 "이 종을 보존하고 산업을 유지하려면 Slope Sea에서의 산란을 인정하고 생애주기에 대한 이해와 자원 역학 관리에 이를 포함시켜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 기사 출처: Atuna, 2022년 3월 7일자



미국 참치 자숙 로인 수입량 32% 감소

우려 대비 양호, 2019년 대비 10% 감소

지난해 미국의 참치 자숙 로인 수입량은 4만 3,864톤으로 2020년 대비 32% 감소했다. 2019년 수입량 4만 8,721톤에 비해서는 10% 감소했다.

평균 수입 가격은 소폭 상승한 톤당 5,714 달러를 기록했다. 2020년 베트남산 평균 수입 가격이 2,063 달러로 정확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다(2019년 6,518, 2021년 6,175). 따라서 2020년과 2021년 연간 수치에서 베트남을 제외하면 지난해 평균 수입 가격은 2020년 대비 4% 하락한 5,500 달러 정도이다.

수입된 자숙 로인의 대부분은 미국 참치캔 시장 점유율 2, 3위인 범블비와 치킨오브더씨 참치캔 가공공장에 공급된다. 1위 스타키스트는 대부분의 참치캔을 아메리칸 사모아에서 생산하고 있다.

미국에 가장 많은 자숙 로인을 공급하는 태국의 지난해 수출량은 1만 1,977톤으로 2020년 대비 51% 감소했다. 평균 가격은 5,466 달러로 2020년 대비

7% 하락, 2019년 대비 16% 하락했다. 이는 날개다랑어 공급 비중이 낮아졌음을 의미한다.

두 번째로 많이 공급하는 피지의 지난해 수출량은 2020년 대비 18% 감소해 2019년 수준으로 돌아왔다. 범블비가 피지 주요 가공업체인 PAFCO와 독점 공급 계약을 맺었기 때문에 날개다랑어 로인 수출량 중 대부분이 샌디에이고의 범블비 가공 공장으로 향했다.

공급 3, 4위 베트남과 모리셔스의 수출량은 증가했다. 5위 인도네시아 수출량은 2019년 838톤에서 2020년 6,093톤으로 증가한 이후 지난해 779톤 감소한 5,314톤을 기록하며 증가분을 대부분 유지했다.

2020년 시장의 급격한 성장 이후 2021년에 미국 참치캔 가공업이 붕괴될 것으로 우려되었지만 전반적인 수치로 보면 미국의 참치캔 생산량은 성공적으로 유지되었다고 볼 수 있다.

* 기사 출처: Atuna, 2022년 2월 18일자

기후변화가 참치에 미치는 영향 예상보다 클 것

UN 보고서

기후 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IPCC)는 2월 28일 발표한 보고서들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기후 변화로 인해 중서부태평양 도서국 수역에서 열대성 다랑어의 이동이 있을 것이다.

이상수온으로 동태평양에서 참치 분포 변화뿐만 아니라 조업 노력 분산도 관측되었다.

보고서에는 온대 다랑어(날개다랑어, 대서양 참

다랑어, 남방참다랑어)와 열대 눈다랑어는 열대 수역에서 감소하고 세기말까지 극지방으로 이동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기재되어 있다. 반면, 가다랑어, 황다랑어는 동부태평양 열대 수역에서 증가하며 서부태평양 적도 인근에서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었다.

* 기사 출처: Atuna, 2022년 3월 1일자



미국 선망선 태평양 조업 척수 지속 감소

남태평양참치조약 올해말 만료, 재협상 필요

중서부태평양수산위원회(WCPFC) 등록 자료에 따르면 2021년에 중서부태평양에서 조업한 미국 국적 선망선은 15척에 불과했다. 2016년 37척, 2019년 31척, 2020년 23척으로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미국 선망선의 16개 태평양 도서국 EEZ 조업을 허용하는 남태평양참치조약(South Pacific Tuna Treaty)은 1988년에 처음 도입되었다. 이 조약은 2016년에 재협상되었으며 2021년 말 만료된다.

2016년 조약 재협정 당시 미국 정부는 합의 철회를 통지하며 협정에 어려움을 겪은 바 있다. 미국 정부는 해당 국가들과 조업일수 5,959일, 6,700만 달러(1일 당 약 1만 1,579 달러)에 합의했으나 미국 참치선주

협회(ATA)가 이를 거부하자 조약을 파기한다고 발표했다.

이후 어업권을 유지하기 위해 다시 협상이 진행되었고 40척, 연간 최대 3,500일, 1만 4,000달러의 새로운 거래가 이루어졌다. 거래에서 가장 중요한 사항은 기존과 다르게 특정 일수에 대한 지급에 얽매이지 않는다는 것이다.

미국 선망선 선주들은 다른 곳에서 더 나은 기회를 찾았다. 그들은 선망선의 국적을 태평양 도서국으로 변경해 합작을 추진했다.

* 기사 출처: Atuna, 2022년 2월 11일자



PNG “2021년 MSC 참치 12만톤 이상 어획”

2020년 대비 67% 증가

파푸아뉴기니(이하 PNG) 측에 따르면, 2021년 PNG의 해양관리위원회(MSC) 인증 참치 어획량은 67% 증가한 12만 3,266톤이다.

2월 PNG 어업협회(FIA) 자료에 따르면 이 중 가다랑어는 7만 3,217톤, 황다랑어 4만 9,692톤, 눈다랑어 357톤이다.

PNG의 2020년 MSC 참치 어획량 7만 4,000톤 중 대부분을 차지한 가다랑어 어획량은 5만 2,000톤이었다. 황다랑어 어획량은 2만 2,000톤이었으나 2021년에 2배로 증가했다.

* 기사 출처: Undercurrent News, 2022년 3월 1일자



ISSF, MSC 인증 관련 참치연승어업 가이드라인 발표 관행 개선 방안 제시

국제수산물지속가능재단(ISSF)은 참치연승어업에 대한 책임있는어업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이 문서는 참치연승어업이 MSC 인증에 도달하기 위해 관행을 개선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언급한다.

원칙1(지속가능한 자원 상태 유지)과 관련, 선단 및 대상 어종에 적용되는 현행 어획 전략(harvest strategies) 준수를 포함해 몇 가지 사항이 제시되었다. 어업은 관리전략평가(Management Strategy Evaluation) 과정과 어획통제규칙(HCRs) 개발을 지원해야 한다. 또한 어업이 다른 참치연승어업 및 다른 이해관계자(MSC 인증을 희망하는 다른 참치 어업, 기국 및 연안 허가 국가를 포함)와 협력하여 HCR 채택 지지를 권장한다. 또 다른 권장 사항은 자원 평가 및 생태계 영향 분석 개선을 위해 최소 요구사항 이상으로 과거 및 현재 어획 정보를 자발적으로 제공하는

것이다.

원칙2(어업의 환경적 영향 최소화)와 관련해 ISSF 보고서가 강조하는 주요 사항 중 하나는 적절한 오피서 버 커버리지 및 모니터링에 대한 지원 및 이행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는 자발적인 오피서 버 승선 또는 전자 모니터링(EM) 시스템 구축을 통해 달성할 수 있다. EM의 경우 분석을 위해 기록된 양승 낚시 노력의 최소 20%가 검토되어야 한다. 또한 어업이 구속력 있고 공개적인 상어지느러미 채취 금지 방침을 채택하고 이러한 방침이 시행되고 있음을 입증해야 한다.

원칙3(효과적인 관리)과 관련해 참치연승어업은 해상에서 전재하는 어선의 경우 지역수산기구 조치의 준수가 권장된다.

* 기사 출처: Atuna, 2022년 2월 24일자

Princes, EU 공급 참치캔 100% 책임 있게 조달 FIP 또는 MSC 인증

영국에서 가장 큰 수산물 통조림 공급업체 중 하나인 Princes 그룹은 유럽에 공급하는 자사 브랜드 참치가 100% 책임 있게 조달되었다고 발표했다.

발표에 따르면 영국, 네덜란드, 폴란드에서 판매한 Princes 참치는 모두 어업개선프로젝트(FIP)나 해양관리협의회(MSC) 인증 어업에서 생산되었다.

FIP와 MSC 조달 비율은 공개되지 않았다.

Princes는 모리셔스에 MSC CoC(유통관리 인증)를 보유한 2개의 참치캔 공장을 가지고 있다. 네덜란드, 영국, 폴란드와 같은 유럽 국가로 판매되는 참치캔은 대부분 이 공장에서 생산된다.

* 기사 출처: Atuna, 2022년 3월 3일자



타이유니온 2021년 순이익 28.3% 증가

참치캔 매출액 감소에도 증가

타이유니온이 지난해 실적을 발표했다. 매출은 6.5% 증가한 1,410억 바트(43억 달러), 영업이익은 5.6% 증가한 83억 바트(2억 5,710 달러), 순이익은 28.3% 증가한 80억 바트(2억 4,780 달러)이다.

참치캔과 수산물 매출액은 6% 감소했다. 매출 비중은 59%가 유통업체 등의 자체 개발 상품(private label), 41%가 자사 브랜드(branded business)이다.

private label 제품 매출은 2020년 대비 7.2% 증가했다. 이는 미국과 태국에서 냉동·냉장 수산물, 애완동물 사료, 부가가치 제품(보조제, 대체 단백질, 간편식) 판매가 증가했기 때문이다. 자사 브랜드 매출도 냉동·냉장 수산물 부문의 판매 증가로 5.6% 증가했다.

지역별 매출액을 보면 미국에서 9.6%, 유럽에서 4.1% 증가했다. 미국 시장에서의 매출액 증가는 외환 수익, 냉동 수산물 판매 회복, 강력한 애완동물 사료 수요에 기인한다. 하지만 이러한 성장은 코로나 팬데믹 이후 수요 감소와 컨테이너 부족 등으로 참치캔 및

수산물 사업이 정상 상태로 돌아오면서 부분적으로 상쇄되었다. 유럽에서는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에서 참치캔 및 수산물 매출이 좋았다. 태국에서도 매출액이 9.7% 증가했다.

타이유니온의 국가별 판매 비중은 지난 5년 동안 미국에서 증가(38.8→43.1%), 유럽에서 감소(30.8→28.3%)했다.

타이유니온은 2022년 매출액 성장 목표를 4~5%로 설정했다.

Business overview by region:

THB mn	2017	2018	2019	2020	2021
Total sales	134,937	133,285	126,275	132,402	141,048
USA	38.8%	37.7%	39.6%	41.9%	43.1%
Europe	30.8%	30.4%	27.9%	29.0%	28.3%
Japan	6.3%	5.7%	5.8%	5.3%	5.1%
Domestic	9.2%	10.5%	11.5%	10.0%	10.3%
Others	14.9%	15.7%	15.2%	13.8%	13.2%

Remark: *Others represent Asia, Australia, Middle East, Canada, Africa, South America and others

* 기사 출처: Atuna, 2022년 2월 23일자

필리핀, 자국 참치 공장에 대한 국제 투자 모색

농업부 장관, 필리핀 농수산업 홍보

필리핀 농업부는 외국인 투자자들에게 필리핀 농수산업, 특히 참치에 관심을 가질 것을 권장하고 있다.

지난 2월 13일부터 17일까지 두바이 세계무역센터에서 개최된 두바이 식품박람회(Gulfood)에서

William Dar 필리핀 농업부 장관은 “필리핀에서 참치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가공공장 건설에 많은 투자 기회가 있다”고 말했다.

* 기사 출처: Atuna, 2022년 2월 18일자



유럽의회, 필리핀 무관세 일시 철회 요구

실행될 경우 참치 수출에 타격

유럽의회(EP) 의원들은 지난 2월 17일 필리핀의 인권 침해를 규탄하는 결의안에 압도적인 찬성표(찬성 627, 반대 26, 기권 31)를 던졌다.

유럽의회는 “필리핀 당국의 협력 의지와 상당한 개선이 없는 경우 필리핀에 부여된 최고일반특혜관세대우(GSP+)를 일시 철회로 이어지게 할 수 있는 절차의 즉시 개시를 유럽위원회(EC)에 다시 한 번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의회는 또한 위원회에 “필리핀의 GSP+제도에 따른 인권 의무 준수와 관련해 명확하고 공개적이며 시간제한이 있는 기준을 설정”할 것을 요청했다.

필리핀은 GSP+에 따라 EU 시장으로 수출하는

6,200개 제품에 대해 무관세를 적용 받고 있다. 필리핀은 2020년에 3만 1,853톤의 참치캔과 7,078톤의 자숙 로인을 EU 시장에 수출했다. EU가 무관세 혜택을 철회하면 수출 관세는 24%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캄보디아는 2020년에 인권 문제로 EU 시장에 대한 면세 혜택을 부분적으로 잃은바 있다.

의회는 2년 전 필리핀의 인권 침해를 규탄한바 있다. 당시 의회는 수천 건의 초법적 살인을 규탄하는 결의안을 승인하고 두테르테 정부에 살인 중단을 요청했다.

* 기사 출처: Atuna, 2022년 2월 21일자

아조레스제도 참치공장 건설 시작

Freitasmar Group, 1,703만 달러 투자

포르투갈 통조림 가공 기업 Portuguese Freitasmar Group은 아조레스제도(포르투갈령) 피코섬에서 참치 공장 건설을 시작했다.

Freitasmar Group은 2021년에 포르투갈 통조림 가공 기업 Cofaco로부터 2018년에 문을 닫은 통조림 가공공장을 인수한 바 있다. Freitasmar Group은 이 소규모 공장에 1,500만 유로(1,703만 달러)를 투자해 100개 이상의 일자리를 창출할

계획으로 이전에 해고된 직원을 우선적으로 채용할 예정이다.

공장 명칭은 Conseran으로 올해 10월 건설이 완료될 예정이다.

아조레스제도 참치 선단은 채낚기 어업으로 가다랑어와 날개다랑어를 어획한다.

* 기사 출처: Atuna, 2022년 2월 21일자



전문가들 태평양 심해 채굴의 부정적 영향 경고

해저 및 중층 생태계 영향 우려

해양 전문가들은 태평양 도서국들의 심해 채굴에 대한 관심이 그들의 참치 산업과 식량 안보에 미칠 부정적인 영향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

지난해 나우루는 국제해저기구(ISA, 심해저 자원 관리 국제기구인)에 심해 채굴을 시작할 계획이라고 알렸다. 나우루는 2년 내로 작업을 추진할 예정으로 ISA가 기한 내에 계획을 평가하는데 필요한 작업을 마무리하도록 압박하고 있다.

지난 2월 8일 해양 전문가 그룹은 심해 채굴이 소음, 중금속 오염 등을 유발해 해저 생태계에 심각한 위협을 초래할 수 있다고 말했다. 뉴질랜드 라디오

(Radio NZ)에 따르면 어류 자원을 포함한 중층 생태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전문가들은 나우루, 통가, 키리바시 정부가 현재 캐나다에 기반을 둔 The Metals Company와 심해 탐사 계약을 체결하며 이들의 활동을 후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과학자들은 The Metals Company가 파푸아뉴기니 심해에서 해저 광물을 채굴하려고 했던 Nautilus Minerals사(현재 파산)와 현재 연결되어 있다고 덧붙였다.

* 기사 출처: Atuna, 2022년 2월 9일자



피지 수산부 장관, 참치 원어 확보 노력

PAFCO 원재료 확보 위해

Semi Koroilavesau 피지 수산부 장관에 따르면 피지는 참치 원어를 필요로 한다. 그는 수산부, 정부, 태평양 대사가 파푸아뉴기니, 솔로몬제도, 바누아투, 키리바시, 투발루에서 PAFCO(피지 주요 참치가공 업체) 공장 원재료를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PAFCO는 날개다랑어 자숙 로인을 미국 범블비사에 공급하고 있다.

* 기사 출처: Atuna, 2022년 2월 15일자



포클랜드 일렉스 오징어 허가증 대부분 발급

ITQB 신청 시작

포클랜드 Andrea Clausen 수산청장에 따르면 일렉스 오징어 어업 허가증 106개(채낚기 105, 트롤 1) 중 73개가 발급되었고 남은 33개 중 25개가 앞으로 며칠 내 발급될 예정이다.

Clausen 수산청장은 “일렉스 오징어 조업이 포클랜드 제도 북쪽에 집중되어 있으며 이는 조업이 시작되는 이맘때 정상적인 형태”라며 “우리 선단 대부분은 허가증을 수령하고 북쪽으로 출항하기 위해 스텔리에 들어와 있는 상황이며 현재 어획량이 적정수준이지만 어획량 증가를 예측하기에 너무 이른 상황이다”라고 말했다.

이번 주 포클랜드 수산청은 모든 종에 관해 2023년

1월 1일부터 25년간 허가를 부여하는 ‘수정된 ITQ(양도성개별할당제) 계획(ITQB)’에 관심이 있는 업체들을 모집하기 시작했다고 주간 펙귄뉴스(Penguin News)가 보도했다.

해당 사안을 규제하는 조례는 이해당사자의 자격을 명시하고 상소 시 분쟁위원회를 소집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특정 종에는 유보 조항을 두고 있다.

신규 ITQB 신청 기간은 2022년 5월 31일까지이다.

* 기사 출처: FIS-net.com, 2022년 2월 19일자,
MercoPress, 2022년 2월 18일자



中 냉동 오징어 2월 가격 상승

톤당 2만 4,500 위안...지난해 동월 수준

냉동 살오징어 200~300g의 2월 하순 중국 국내 가격은 지난해 동월과 비슷한 수준이며, 1월 대비 4~6% 상승한 톤당 2만 4,500 위안을 기록했다.

현지 소식통에 따르면 지난해 중국 내 총 양륙량이 2020년 대비 30% 감소한 약 15만톤에 그쳤기 때문에 현재 중국 내에 가용 가능한 재고가 적은 상황이다. 지난해 말 대체품인 아르헨티나 일렉스 오징어의

어획 또한 부진했기 때문에, 1월 이후 오징어 가격은 점차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2월 중순 시점 아르헨티나 일렉스 오징어 200~300g의 가격은 지난해와 비슷한 톤당 2만 1,500 위안으로, 어획 부진으로 인해 1월 대비 2% 상승했다.

* 기사 출처: 미나토신문, 2022년 3월 3일자



남미 보존 그룹, 오징어 보존 조치 필요성 촉구

SPRFMO 연례회의 결과에 실망 표해

대왕오징어의 지속가능한 생산을 추구하는 대왕오징어 지속가능관리위원회(CALAMASUR)가 남태평양에서 어업 기구의 결단이 없다면 페루, 에콰도르, 칠레가 타격을 입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남태평양어업관리기구(SPRFMO) 연례 회의가 지난 1월 24~28일에 개최되었다. 해당 회의는 남태평양 대왕오징어 관리·보존 사안에 대해 어떠한 결정이나 진전도 없이 끝났다.

CALAMASUR 회장 Alfonso Miranda Eyzaguirre에 따르면 대왕오징어 어업에는 관리 조치가 단 하나뿐이며, 그마저도 어업 노력을 제한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해당 관리 조치에는) 한계가 있다. Miranda 회장은 현재 631척의 중국 선단이 남태평양에서 오징어를 “비정기적으로 조업”하고 있으며, “페루, 에콰도르, 칠레에 피해를 입히고 있다”고 주장했다.

Miranda 회장에 따르면 최근 수년간 페루, 에콰도

르 해역에서 증가하는 아시아 원양선단의 조직적인 불법 조업 행위가 확인되었다. Undercurrent News는 2020년 에콰도르 갈라파고스제도 인근에서 조업하는 중국 선단이 위성 기반 자동식별 시스템을 끄고 에콰도르 EEZ에 진입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보도한 바 있다. 해외 선단을 통제하려는 중남미 국가들의 노력은 미흡하다. Miranda 회장은 SPRFMO가 최소한 어업 관리의 일부 문제라도 해결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현재 대왕오징어 어업은 오픈서버나 전제에 관한 어떠한 통제도 없는 상태이며, CALAMASUR는 최소 오픈서버 도입 및 전제 제한을 추진해 왔다. 그러나 Miranda 회장은 “최근 회의에서 어떠한 합의도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대왕오징어 자원은 앞으로 최소 1년 더 관리 조치가 없는 상태”라고 우려했다.

* 기사 출처: Undercurrent News, 2022년 2월 10일자

日 2021년 냉동 오징어 수입 9만 5,927톤

페루산 수입 단가 kg당 170 엔

일본의 2021년 냉동 오징어 수입량은 지난해 대비 1% 증가한 9만 5,927톤을 기록했다.

주력인 남미산 대왕오징어는 페루, 칠레산을 합쳐 9% 증가한 2만 7,694톤을 기록했다. 페루산의 평균 단가는 170 엔(16% 하락), 칠레산 148 엔(38% 하락)으로 모두 대폭 하락했다. 살오징어의 주요 산지인 러시아산 수입량은 7,500톤(45% 증

가)으로 증가했다.

그러나 러시아의 지난해 어획 추세가 부진한 것으로 전해졌고, 대왕오징어의 국제 시세도 저점에 도달한 후 코로나19 이후 경제회복에 따라 반등할 가능성도 제기되어 지난해처럼 원활한 수급이 가능할지 미지수라는 견해도 있다.

* 기사 출처: 일간수산경제신문, 2022년 2월 24일자



러시아 명태 H&G 가격 상승

중국 가공업체 주문 증가 원인

중국으로 수출되는 25cm 초과 명태 H&G의 CFR 가격은 연초 톤당 1,200 달러였으나 이후 계속 상승해 현재 톤당 1,400 달러 수준이다.

중국 가공업체들이 춘절 연휴가 끝난 후 다시 명태 H&G를 사들이기 시작했으나, 한 칭다오 소재 가공업체 오너는 중국 가공업체 전반에 EU의 러시아 제재 방향에 대한 '패닉'이 있다고 전했다.

덴마크 수산협회의 Poul Melgaard Jensen 이사는 러시아에 대한 EU의 제재가 있을 경우, EU 가공업체들은 중국에서 가공된 러시아산 수산물에 포함될 가능성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고 말한 바 있다.

러시아의 명태 공급 대기업의 한 임원에 따르면 중국 구매자들은 EU의 금지 조치가 나올 것을 우려한다고 전했다. 관계자들은 또한 현재 소매업체들이 일방적으로 러시아산 제품들의 불매를 결정하는 일이 러시아산 수산물에도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EU와 미국의 제재가 서방 국가 구매자들의 러시아

산 명태 대금 지불 능력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으나, 중국은 위안화나 루블화로 자체적 거래가 가능한 시스템을 갖췄다.

한 소식통에 따르면 칭다오의 가공업체가 주문을 하면서 H&G 가격이 상승하고 있다.

러시아 명태 공급업체 관계자에 따르면 러시아 업체는 H&G를 최대한 줄이고 필렛을 늘리는 기존의 기조를 유지하며 앞으로 몇 주 동안 상황을 지켜볼 계획이지만, 상황이 악화된다면 H&G 생산에 주력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칭다오 가공업체들 중 일부는 2월 19일경부터 생산을 재개했다. 중국 현지 관계자에 따르면 현재 칭다오 가공공장은 하나둘씩 가동재개 승인을 받기 시작했고, 인력도 충분한 상태이다. 현재 항구에서 대기 중인 원재료는 약 6~8주분으로 추측된다. 대부분의 가공업체가 충분한 양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 기사 출처: Undercurrent News, 2022년 3월 3일자

러시아, 명태 고차가공 가속화

선상 고차가공품 생산량 44% 증가...중국 수출규제 영향

러시아에서 가장 중요한 어종으로 간주되는 명태의 고차가공이 가속화되고 있다. 홋카이도 기선어업협동조합연합회에 따르면, 새 시즌이 시작된 1월 필렛, 민스, 연육, 어분 등 고차가공품의 선상 생산량은 지난해 동월 대비 44% 증가했다. 육상 생산량은 2.4배로 증가했다.

이러한 추세에 계기가 된 것은 중국의 러시아산

명태 수입 규제였다. 러시아산 명태의 고차가공을 담당하던 중국이 수입을 규제하자, 자국 고차가공 성장을 도모하던 러시아의 행보가 더욱 가속화되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2021년 러시아의 선상 고차가공품 생산량은 2020년 대비 52% 증가한 12만 3,000톤을 기록했다.

* 기사 출처: 일간수산경제신문, 2022년 2월 15일자



러-우크라이나 전쟁, 명태 필렛 가격 영향

공급업체, 최대한 많이 파는 데 초점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명태 업계 상황에 대해 업계 관계자 9인이 익명으로 의견을 밝혔다.

주요 수산물 중계업체 임원에 따르면, PBO(가시 제거) 블록 가격은 러시아의 침공 이전까지 공급업체들이 6월 거래에 톤당 5,000 달러를 부를 정도로 강세였으나, 현재 가격 상승 기대치가 낮아진 상태이며 공급업체들은 최대한 많이 파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러시아 수산 대기업의 한 임원은 러시아산 수산물이 유럽 수입 금지 등의 제재를 받거나 이에 대한 소비자·소매업체의 반응이 발생할 경우, 미국 PBO 명태 가격이 톤당 5,000~6,000 달러까지 치솟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해당 임원은 또한 미국산 PBO 나 중국산 더블프로즌(러시아에서 냉동 상태로 중국에 운송되어 가공되는 2회 냉동 제품) 필렛의 급격한 공급 증가는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난 2월 19일까지 미국 PBO 생산량은 1만

2,930톤으로 지난해 동기 대비 35% 증가했지만, 평년 수준에는 크게 못 미쳤다. 미국 자료에 따르면 2018~2020년 이맘때 생산량은 각각 2만 960톤, 1만 8,170톤, 2만 2,430톤이었다. 한 미국 명태 공급업체 임원은 “연육 가격이 높고 맥도날드 등 퀵서비스 식당의 딥스킨 수요가 높기 때문에 PBO 생산량이 적은 추세가 시즌 내내 지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러시아 명태 공급업체 임원은 두 가지 시나리오의 가능성을 제기했다. 첫째로는 다소의 차질은 있으나 정상적으로 판매가 계속되고, 러시아 명태 부문이 필렛 및 부가가치 제품에 계속 중점을 두어, PBO 과잉 공급으로 가격이 그대로 유지되거나 다소 완화되는 것이다. 두 번째는 러시아 제품에 대한 제재나 불매가 발생하는 상황으로, 미국 명태 제품 가격이 폭등하고 러시아 기업이 새 시장을 찾는 것이다.

* 기사 출처: Undercurrent News, 2022년 3월 3일자

러시아 극동 명태 어획량 34만 1,000톤

지난해 동기 대비 32% 증가

러시아 수산청에 따르면 올해 러시아 오토츠크해 명태 어획량은 15일 시점까지 누계 29만 8,600톤으로 지난해 동기 대비 36% 증가했다. 극동 지역 전체의 명태 누계 어획량은 지난해 동기 대비 32% 증가한 34만 1,000톤을 기록했다.

이 중 캅차카·크릴 및 서캅차카에서 어획된 명태는 24만 9,800톤이며, 북오토츠크해에서 어획

된 명태는 4만 8,000톤, 동사할린에서 어획된 명태는 800톤이다. 태평양청어 어획량은 5만 7,300톤, 대구 어획량은 2만 500톤을 기록했다.

15일 시점 조업 중인 어선 수는 명태 85척, 청어 4척, 대구 18척이다.

* 기사 출처: 미나토신문, 2022년 2월 17일자,

Undercurrent News, 2022년 2월 16일자



노레보 “현재 정상 운영...전쟁 여파 예측불가”

수산물 분야 현재 제재 대상 아니나 예측 어려워

러시아 최대 수산 기업 노레보(Norebo)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과 서방 세계의 대응 속에서 현재 정상적으로 영업하고 있으나, 경제 제재 등이 어떤 여파를 미칠지 예측이 불가하다고 전했다.

노레보의 유럽 지부 영업운영 전무이사 Sturlaugur Haraldsson은 어획, 가공, 운송이 평소와 같이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말했다. Haraldsson은 “수산물 분야는 현재로선 제재 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인다”며 “어떻게 전개될지 예측하기 어렵지만, 그 영향이 양측 모두에게 파괴적일 것이기 때문에 제재 대상이 되지 않기를 바란다”라고 우려했다.

Haraldsson은 대구, 해덕대구, 명태 가격이 높고

수산물 소비도 현재 큰 호황이기 때문에, 해당 어종 공급량의 절반을 차지하는 러시아산이 사라진다면 유럽, 미국 시장에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 우려했다. Haraldsson은 또한 러시아 기업들에게 제재가 가해질 경우 다른 시장을 찾기 위해 총력을 기울여야 하지만 결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Sennikov는 전쟁과 그에 따른 제재가 노레보의 EU 수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예측하기 어렵다”라고 인정했다.

* 기사 출처: Undercurrent News, 인트라피쉬,
2022년 2월 25일자

日-러시아 수산 무역 일시 중단

러시아 명태 고차가공 전략에 타격

러시아 SWIFT 배제에 일본도 동참하면서, 일본-러시아 무역은 당분간 중단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관계자에 따르면, 특히 기업의 법령 준수에 엄격한 수산·상사 대기업 특성상 러시아 송금이 불가능해진 상황에서 거래의 결제가 중단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했다.

러시아로부터 매년 수산물을 대량 구매한 모 일본 대기업은 직접 송금이 불가능해진 2월 28일부터 사실상 거래가 중단되어, 관계자에 따르면 향후를 예측할 수 없는 상태이다.

그러나 SWIFT에서 배제되어도 러시아 경영자 측이 소유한 홍콩 등 타국 계좌로 우회하여 송금하는 등의 방법도 논의되고 있기 때문에, SWIFT 배제의 범위가 어디까지 해당되는지가 관건인 것으로 전해졌다.

일본 홋카이도 기선어업협동조합연합회(이하 기선련) 측에 따르면, 경제 제재로 인해 러시아의 명태 고차가공 전략에도 타격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 기사 출처: 일간수산경제신문, 2022년 3월 1일자,
2일자



러-우크라이나 사태, EU 명태·대구 시장에 치명타

무역 제재로 인해 심각한 결과 유발 우려

EU 어류가공·무역협회(AIPCE)에 따르면 EU가 한 해 동안 수입하는 러시아산 명태의 양은 약 16만톤으로, 전체 명태 수입 중 약 19%를 차지한다. 러시아산 대구 수입량은 15만 6,000톤으로 전체 대구 수입 중 약 17%이다. 러시아산 흰살생선 수출의 대부분이 중국으로 이동해 가공된 후 EU로 향하기 때문에, EU의 실제 러시아산 흰살생선 의존도는 그 이상이다.

AIPCE 회장 Guus Pastoor는 모든 것은 EU에서 정할 제재 조치에 달려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내용을 기다려야 하나, 현재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가용성과 비용에 악영향을 받고 있는 수산물 조달 상황이 러시아 위기로 인해 더욱 큰 압박을 받을 것으로 전망한다고 말했다.

EU 기업들은 크림반도 사태 후 EU의 제재 조치에 맞서 러시아가 내놓은 제재 조치로 인해, 2014년

이후 러시아로 수산물을 수출하지 못하고 있다. 여기에 EU의 러시아산 수입과 관련된 EU-러시아 간 오픈뱅킹 시스템도 EU의 제재로 인해 단절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덴마크 시장조사기관 Nordea Markets의 흰살생선 분석가 Finn Arne Egeness는 영향이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되나, 러시아 쿼터가 30%를 차지하는 북동대서양 대구 쿼터 등이 단기적인 큰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Egeness는 수산물 부문이 전통적으로 무역 봉쇄에 탄력적이었기 때문에 위기가 발생해도 새로운 상황에 적응할 것이라고 예상했으나 현 상황이 2014년과 다르기 때문에 장담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 기사 출처: Intrafish, 2022년 2월 24일자

러시아 냉동 어류 가격 환율로 인해 타격

루블 기준 상승했으나 달러 기준 급락

러시아 극동, 북서부 및 중부 지역의 2022년 9주차 냉동 생선 가격은 계속되는 경제 불확실성으로 인해 강세를 보였다.

극동 지역 핑크연어, 명태, 청어 가격은 지난주 각각 kg당 140~170, 85~100, 50~75 루블이었으나 이번주 각각 kg당 145~175, 90~105, 50~80 루블로 상승했다. 태평양대구 가격은 지난주 kg당 175~220 루블에서 이번주 175~215 루블로 유지되었다.

북서부 지역의 경우, 대구, 연어, 청어 가격은 지난주 각각 kg당 210~240, 170~220, 70~110 루블에서 이번주 각각 kg당 210~245, 170~225, 75~110 루블로 비슷하게 유지되었다.

중부 지역의 경우, 연어, 명태, 대서양고등어 가격은 지난주 각각 kg당 155~210, 90~125, 145~175 루블이었으나 이번주 각각 kg당 155~215, 90~130, 145~180 루블로 소폭 상승했다.

* 기사 출처: Undercurrent News, 2022년 3월 4일자



美 수산업계, 러시아 수산물 수입 금지 요구

美-러 수산물 무역 불균형 철폐 원해

알래스카 주 공화당 상원의원 Dan Sullivan과 Lisa Murkowski는 러시아가 2014년부터 미국 등 서방국가 수산물의 수입을 금지한 점을 들어 러시아산 수산물의 수입을 전면 금지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확실하게 결정되기 직전 발의된 해당 법안은 현재 매사추세츠 주 수산업자들이 피해를 입을 수 있다고 주장하는 민주당 상원의원 Ed Markey의 반대로 인해 통과되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Sullivan 의원은 해당 법안이 “어업자들의 기본적 상호주의를 지지하는” 동료 공화당 의원 전원의 지지를 받고 있다고 말했다.

알래스카 베링해 게 어업협회의 Jamie Goen 전 부는 협회를 대변해 러시아와의 수산물 무역이 공정하게 개방될 때까지 러시아산 수산물 수입 금지를 지지하며, 캐나다와 노르웨이 등 타 시장 수요가 있기 때문에 충분히 대체가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Trident Seafood, Alaska General Seafood 등

미국 유력 수산 가공업체가 다수 속한 태평양수산가공업협회(PSPA)의 Chris Barrows 회장 또한 “러시아의 수입 금지 조치 이후 알래스카 수산업자들은 주요 시장의 폐쇄로 인해 부당한 고통을 겪었다”라고 주장했다.

미국은 2021년 러시아로부터 총 4만 8,867톤(약 12억 달러)의 수산물을 수입했다. 2020년 알래스카 수산물마케팅연구소(ASMI)가 발표한 논문에 따르면 알래스카와 러시아에서 생산하는 수산물은 동일한 품목이 많으며, 러시아산 수산물이 알래스카산 수산물보다 저렴하게 미국에서 판매되는 등 수산물 무역 불균형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러시아가 금지 조치를 취하기 전인 2013년 알래스카 수산업자들은 러시아에 약 6,130만 달러 규모의 수산물을 수출했다.

* 기사 출처: Intrafish, 2022년 2월 24일자

美 알래스카 명태 5일 시점 어획량 약 12만톤

지난해 동기 대비 41% 증가

미국 수산청(NMFS)에 따르면 2월 5일 시점 알래스카 명태 누계 어획량(베링해·알류산·알래스카만 합계)은 11만 9,500톤으로 지난해 동기 대비 41% 증가했다. 주간 어획량은 5만 6,900톤으로 2주 연속 5만톤 중반을 기록했다.

명란 생산량은 2,900톤으로 35% 증가했다. 베링해·알래스카만 연육 생산량은 47% 증가한 1만

4,900톤을 기록했다. 필렛 생산량의 경우, 뼈·껍질 제거 제품이 2.5배인 7,100톤, 껍질 제거 제품이 20% 증가한 5,600톤, 드레스 제품이 지난해 동기의 2배인 1,000톤을 기록하며 강세를 보이고 있다. 연육과 필렛·드레스·민스 생산 비율은 51:49로 연육의 비율이 다소 높아지고 있다.

* 기사 출처: 미나토신문, 2022년 2월 17일자



SWIFT 제재로 美-EU 명태 필렛 구매력 제한

中 H&G 대량 주문 시작

러시아 SWIFT 배제로 구미권과 일본, 싱가포르, 한국 등의 러시아 수산물 구매력이 제한될 것으로 예상되는 반면 중국의 H&G 명태 구매는 강세를 보이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 주요 명태 공급업체 임원에 따르면, SWIFT 제재로 인해 구미권, 아시아 선진국은 제3국을 경유한 전화·팩스 등을 통해 중국 위안화 등 다른 통화를 사용하여 거래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해당 임원은 특히 수산물 무역에 영향을 미칠 추가 제재 가능성이 구매자들을 망설이게 한다고 전했다.

해당 임원은 “러시아산 수산물을 유럽 항구로 1주일 내에 단기 배송하는 것은 가능”하나, “일부 수입업자들이 러시아산 수산물이 EU에서 금지될 수도

있다고 우려하고 있기 때문에 3월~4월 말 도착 예정인 어획물에 대한 대금 지불이 이루어지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전했다.

해당 임원에 따르면 중국 공장들은 루블화나 위안화로 거래가 가능하기 때문에 H&G(머리, 내장 제거)를 대량 주문하고 있다. 해당 임원에 따르면 기업들은 앞으로 몇 주 동안 상황이 개선되기를 바라며 필렛에 집중할 것으로 예상되나, 상황에 변화가 없거나 악화되어 러시아 수산물 전체에 제재가 가해지면 H&G에 집중할 것으로 전망된다.

* 기사 출처: Undercurrent News, 2022년 2월 28일자, Intrafish, 2022년 3월 1일자

美 알래스카 명태 어업, 필렛 생산량 증가

노동력 부족 우려되는 상황

미국 알래스카명태생산자협회(GAPP)가 집계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A시즌 시작 이후 연안 어획량은 4만 8,628톤으로 지난해 동기 대비 2배 이상이다. 어획-가공업자가 어획한 양은 4만 6,271톤으로 지난해 동기 대비 45% 증가했다.

소식통에 따르면 어획물의 개체당 크기가 700~800g 가량이라고 한다.

2월 5일 시점 껍질·지방층 제거(deep-skinned) 필렛 생산량은 지난해 대비 19.8% 증가했고, 가시제거(PBO) 필렛 생산량은 2배 이상 증가했다. 연육 생산량도 B시즌 종료~2월 동안 지난해 대

비 47% 증가하며 고공행진을 이어갔다.

문제는 노동력 부족이다. 알래스카 Dutch Harbor에 위치한 주요 가공시설의 한 임원에 따르면 이들의 공장은 A시즌에 투입할 인력이 부족한 상태이다. 해당 임원은 H-2B 비자(특정 조건을 충족하는 미국 고용주가 H-2B 대상 국가 국민을 단기 고용할 수 있는 비전문직 취업비자)가 발급되었다면 이러한 노동력 부족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 기사 출처: Intrafish, 2022년 2월 18일자



러시아 FSA, 오호츠크해 명태 MSC 인증 취득

노레보도 자체 인증 추진 중

러시아 최대 명태 생산업체인 RFC를 회원으로 둔 러시아 어선선주협회(FSA)가 오호츠크해 명태 어업에 대한 해양관리위원회(MSC) 인증을 받았다.

RFC는 2020년 어업 개편을 둘러싼 이견으로 인해 러시아명태어업자협회(PCA)와 법적 분쟁을 벌였고 해당 협회를 탈퇴했다. 그 결과 RFC는 유럽 시장 접근에 중요한 수단인 오호츠크해 MSC 인증 대상에서 제외되었다. 이후 법원이 RFC의 손을 들어주면서 이들은 다시 PCA에 복귀해 MSC 인증 사용 권한을 되찾았다. 그러나 해당 분쟁은 RFC가 타 어업 회사들과 손잡고 자체적 인증 취득을 추진하는 계기가 되었다.

오호츠크해는 러시아 명태 어업 구역 중 가장 생산성이 높은 곳이다. RFC는 현재 다른 어업 구역에서도 인증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2016년 설립된 FSA는 러시아 전체 자연산 어획량의 22%를 차지하는 29개 어업회사로 구성되어 있다.

RFC 이사장 Olga Naumova는 선단 투자로 인해 싱글프로즌(1회 냉동을 거친 제품) MSC 인증 제품의 생산량이 증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RFC는 지난해 한 해 동안 유럽 시장에서 2만톤의 필렛 공급 계약을 확보했다. 이는 2020년의 1만 2,000톤에서 대폭 증가한 수치이다. Naumova는 올해 공급량이 2만 5,000톤으로 증가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러시아 최대 어업 쿼터 보유기업인 노레보(Norebo) 또한 오호츠크해 명태 트롤 어업에 대한 자체적 MSC 인증 취득을 추진하고 있다. 해당 기업은 현재 PCA가 MSC 인증을 받은 곳과 같은 구역에서 명태 어업 평가를 받고 있다.

노레보의 Sergey Sennikov 부사장은 현재 노레보 선단이 PCA 인증 적용을 받고 있으나, 노레보가 자체 인증을 취득한다면 기업의 독립성을 더욱 강화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 기사 출처: Intrafish, 2022년 2월 18일자

'22년 1월 러시아 냉동 수산물 철도 운송량 대폭 증가

지난해 동월 대비 2배

철도 네트워크를 통해 러시아 전역으로 운송되는 수산물의 양이 지난해 대비 대폭 증가했다.

러시아철도공사(RZD)에 따르면 2022년 1월 극동 지역 냉동 수산물의 철도 운송량은 지난해 동월 대비 2.1배인 5만 8,500톤을 기록했다. 수산물을 가장 많이 운송받은 지역은 모스크바(1만

9,000톤)였다. 해외로 수출량은 1만 6,100톤이며 대중국 수출량은 1만 2,600톤이었다.

2021년 러시아 극동지역의 냉동 수산물 총 운송량은 68만톤이다.

* 기사 출처: Undercurrent News, 2022년 2월 17일자 2022년 2월 7일자



美 FDA, 식품 전자이력 관리 강화 추진

모든 생선류 포함... 업계 블록체인 도입 급물살 탈 것으로 전망

FDA는 지난 1월 미국 내 유통되는 특정 식품의 유통 이력 관리를 위해 이와 관련된 '중요한 기록'들을 보관·유지하는 것을 의무를 강화하는 방침을 추진하고 있다고 발표했다. 중요한 기록에는 재배, 가공, 배송, 수취 등 모든 식품 유통 이력이 포함되며 이를 통해 효과적이고 안전하고 투명한 공급망 관리를 기대하고 있다. FDA는 오는 11월까지 '특정 식품에 대한 추가 이력 추적 기록 요건(Requirements for Additional Traceability Records for Certain Foods)' 규칙을 확립해 식품안전현대화법(Food Safety Modernization Act, FSMA)에 추가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특정 식품의 이력 관리 강화는 FDA의 '더 스마트한 식품안전 청사진의 새로운 시대'의 일환이자 FSMA의 제204조(d)인 고위험군 식품의 관리를 위한 기록 보관 및 관리 시행을 위한 것이다. FDA는 새로 제안한 규칙이 식품을 매개로 발생하는 질병이 발견될 경우 식품의 식품 이력을 신속하게 추적해 질병 확산을 예방하거나 위험성을 낮추고 식품 유통 혹은 구매자에게 건강상의 위험을 알릴 수 있다고 설명했다.

FDA는 특정 식품에 대한 추가 이력 추적 기록을 전자화하도록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프랭크 이아나스 FDA의 식품정책·부국장은 지난 2월 1일 월스트리트저널과의 인터뷰에서 새로운 규칙에 적용되는 식품 유통 시 필요한 정보를 전자기록으로 보관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이미 식품 업계의 많은 기업들이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해 시스템 디지털화 작업을 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블록체인 기술을 언급했다.

FDA는 리스크-랭킹 모델과 데이터 수집을 통한 고위험군 식품 분류 작업을 통해 식품 이력 관리 품목 리스트(Food Traceability List, FTL)를 발표했다. 추가 이력 추적 기록 요건의 대상 품목은 FTL에 명시된 품목 외에 해당 품목이 함유된 식품도 새로운 규칙의 적용 대상이 된다. FTL에는 혼제된 제품을 포함한 모든 생선류, 갑각류, 연체동물·조개류 등 총 16개 품목이 올라있다.

FTL에 포함된 품목을 재배, 수령, 생산, 가공, 운송할 때 주요 데이터 요소(Key Data Elements, KDEs)를 기록 및 보관해야 한다. KDEs는 위에 나열한 주요 이벤트(Critical Tracking Events, CTEs)가 발생할 때마다 생성해야 하며, 기록해야 하는 정보는 이벤트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주로 식품의 품목 정보, 재배·가공·생산·수령·운송 시간과 장소, 관련 업체 정보, 연락처 등이 포함된다.

이미 일부 대기업들이 효율적이고 투명한 식품의 공급망 관리를 위해 블록체인 기술을 활발하게 도입해왔다. 지난 2018년 IBM이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론칭한 식품 유통 추적 솔루션인 푸드트러스트(Food Trust)는 월마트 등 식품업계의 500여 개 주요 기업이 이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다.

현재 FDA의 구체적인 규칙이 발표되지는 않았으나 질병 발생 위험도가 높은 신선식품 위주로 식품 이력 관리를 위한 관련 지침이 더욱 강화될 것은 확실하다. 식품 수출 기업들과 미국 진출 식품기업들은 이를 염두에 두고 효과적인 기록 관리를 위한 방안과 블록체인 도입 등을 고민해보아야 할 것으로 보인다.

* 기사 출처: kotra 해외시장뉴스, 2022년 2월 11일자



美 2022년 수산물 가격 급등·소매 판매 위축

냉동 수산물 가격 10% 이상 급등...판매량 감소

마켓 리서치 회사 IRI가 발표하고 텍사스에 본사를 둔 210 Analytics사가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2022년 1월 미국 신선 수산물 가격은 지난해 동월 대비 10.8% 상승한 개당(단위당) 평균 8.92 달러를 기록했다. 냉동 수산물 가격은 10.2% 상승한 개당 평균 9.94 달러이다. 상온 보관 수산물 가격은 7.2% 상승한 개당 평균 2.01 달러를 기록했다.

인플레이션과 공급망 문제로 인해 1월 수산물 매출은 7.3% 감소한 6억 6,600만 달러를 기록했다.

가격 인상은 대부분의 소매 판매 분야에서 발생하고 있다. 미국 노동통계국에 따르면 소비자물가지수는 2022년 1월까지 12개월간 7.5% 상승해 40년 만에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IRI 조사에 따르면 쇼핑객의 89%가 식료품 인플

레이션에 대해 “아주 잘 알고 있으며”, 이 중 95%가 “우려된다”라고 답했다. 또한 42%의 쇼핑객은 식료품 가격 인상에 대해 “극히 걱정스럽다”라고 답했다. 210 Analytics의 Anne-Marie Roerink 대표에 따르면 지난 1월 조사에서 코로나19에 대해 “극히 걱정스럽다”라고 응답한 쇼핑객은 38%이다. 사실상 가격 인상이 코로나19 이상의 걱정거리가 된 셈이다.

냉동 수산물 매출액은 7억 3,700만 달러로 전월 대비 1% 감소했으나 여전히 냉동 동물성 단백질 부문에서는 가장 많은 매출을 기록 중이다. 그러나 판매량으로 봤을 때, 전월 대비 개수 기준으로는 16.4%, 중량 기준으로는 16.2% 감소했다.

* 기사 출처: Seafoodsource, 2022년 2월 14일자

뉴질랜드, 수산물 전용 친환경 포장 개발 지원

생분해성 폴리스티렌 대체품 'ZealaFoam' 생산 추진

뉴질랜드 정부가 수산업용 바이오 기반 폴리스티렌(용기, 가전제품 등에 사용되는 플라스틱의 일종) 대체 물질의 상업적 생산 지원을 강화했다.

해당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벤처기업인 바이오 폴리머 네트워크(BPN)는 수산업에서 사용되는 폴리스티렌 포장 폐비화 생분해성 대체품의 생산 가속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

뉴질랜드 정부는 1차산업부(MPI)의 지속가능 식품·섬유 미래펀드(SFF Futures)라는 기금을 통해 총 117만 달러 규모인 해당 프로젝트에 47

만 2,500 달러를 지원했다. 해당 기금은 바이오 기반 상업용 포장재인 ZealaFoam의 생산 가속화에 사용될 예정이다.

BPN CEO Sarah Heine는 ZealaFoam의 상업적 사용이 뉴질랜드의 수산물 산업에 식물기반 지속가능한 포장이라는 선택지를 제공하고, 산업 미래에 대비하며,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감소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 기사 출처: fiskerforum, 2022년 2월 16일자



EU 대구 어업계, 노르웨이에 러시아 제재 동참 압력

러시아에 이전한 대구 쿼터 문제 제기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세계 수산업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불확실한 가운데, 유럽 대구 부문은 노르웨이에 러시아 추가 압박 동참을 요구하고 있다.

Ivan Lopez 유럽어업동맹(EUFA) 대변인은 이것이 단순히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2021년 초 노르웨이가 스발바르 해역에서 일방적으로 EU 대구 쿼터를 감축시키고 그 중 50%를 러시아 국가 쿼터로 이전했을 때부터 계속해서 제기된 문제라고 말했다.

Lopez 대변인은 “지금도 노르웨이가 이 부문에서 (EU와 러시아 중) 어느 편에 설지 결정할 시기라고 확신한다.”라고 말했다. 스발바르 해역은 1920년 체결된 스발바르 조약에 근거해 노르웨이에 자치권이 부여된 세계 최북단 공해이다. Lopez 대변인은 “노르웨이가 러시아 어업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며 “노르웨이의 입장이

난처하다는 것은 알지만, (노르웨이보다) 더 취약하고 자원이 부족한데도 러시아에 더 확고한 입장을 취하는 국가들이 존재한다”라고 주장했다.

노르웨이 정부는 러시아의 침공을 강력 규탄하고 NATO와 UN에 협력한다고 밝혔으나, 스발바르 및 스발바르-러시아 간 관계에 대해서는 언급을 피했다.

최근 노르웨이어선협회(Fiskebat) 측은 회원사들에 “추가 통보가 있을 때까지” 가급적 러시아 해역을 피하도록 권고한 바 있다.

노르웨이와 러시아는 1977년부터 바렌츠해 수산 자원을 공유하고 대구·청어·넙치 등 여러 종에 대한 연간 쿼터에 합의했다. 이 협정으로 인해 노르웨이 선단이 러시아 EEZ에서 조업할 수 있고, 그 반대의 경우도 가능하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은 해당 협정을 위태롭게 만들 수 있다.

* 기사 출처: Undercurrent News, 2022년 3월 3일자

EU, 세네갈 수역에 EU 국경수비대 파견 제안

서아프리카-카나리아제도 IUU·밀입국 감시 목적

EU 집행위원회(EC)는 EU 국경기관인 프론텍스(Frontex)를 세네갈 영해에 파견해 불법 조업 및 불법 입국을 단속하자는 안을 제안했다.

Ylva Johansson EC 집행위원은 세네갈에 프론텍스를 배치하면 서아프리카에서 카나리아제도로 이어지는 항로를 이용하는 불법 입국뿐만 아니라 유럽, 중국 선단과 연관된 불법 조업을 감소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

세네갈이 프론텍스 작전의 자국 내 배치를 허용한다면 프론텍스 최초의 EU의 관할권 외 배치 사례가 된다. 현재 세네갈 EEZ 감시 계획·조정은 세네갈 어업보호감시국이 담당하고 있다.

세네갈 정부는 아직 해당 안에 대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 기사 출처: Seafoodsource, 2022년 3월 3일자



대만, 美 WRO 조치로 인해 노동착취 관련 규정 개정 노동착취 연루된 자국민, 외국 국적선 운영·투자 불허

대만 수산청이 미국 관세국경보호청(CBP)으로부터 선내 노동 착취 혐의를 받은 대만 어선(국적 바누아투) Da Wang호의 선주에게 부여된 “외국 국적 어선 운영투자 허가”를 취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CBP는 지난 2020년 8월 18일 Da Wang호 어획물의 미국 항구 입항을 금지시키는 ‘인도보류명령(WRO)’을 발표했다. CBP는 또한 2022년 1월 28일 해당 어선에서 ILO 강제노동 지표 11개 기준 전부에 해당하는 증거를 발견했다는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Chih-Sheng Chang 대만 수산청장에 따르면 관련 규정이 개정되었다. 개정안을 통해 정부 기관은

강제노동이나 인신매매에 연루된 자국민에게 외국 국적선 운영·투자를 불허하며, 이미 승인된 허가도 취소할 예정이다. 또한 강제노동·인신매매에 연루된 외국 국적선의 대만 입항도 불허할 계획이다.

대만은 2021년 6월 자체 규정 개정을 통해 선주가 강제노동·인신매매에 연루된 외국 국적선의 대만 입항을 금지했지만, 정부는 이러한 위반을 감지하거나 판별할 방법을 명시하지 않았다. 대만참치협회는 노동 착취 근절을 위해 CCTV와 블록체인을 도입할 예정이라고 2021년 11월 발표했다.

* 기사 출처: Seafoodsource, 2022년 2월 14일자

日 어패류 가계 소비 감소 2021년 1세대당 소비 7만 5,035 엔

일본 총무성이 2021년 가계조사 소비지출 통계를 발표했다. 일본의 2인 이상 가구 1세대당 어패류 연간 소비지출 금액은 7만 5,035 엔으로 2020년 대비 3.0% 감소했다. 코로나19 감염 확산으로 인한 내식·가정식 증가 효과가 잠잠해졌고, 이후 어획 부족 및 어가 급등이 악영향을 끼친 것으로 분석된다.

어패류 소비지출액이 지난해 대비 감소했으나, 코로나19 사태 이전인 2019년의 지출액(7만 3,862 엔)은 여전히 상회했다. 다만 이는 어가가 급등한 것이 주된 원인으로 분석된다.

주력인 신선 어패류의 연간지출액은 가구당 4

만 2,610 엔(지난해 대비 2.3% 감소)으로, 19년 지출액(4만 1,387 엔)을 상회했다. 수량은 가구당 2만 2,964g(4.0% 감소)으로, 2020년(2만 3,910g) 대비 감소했고 2019년(2만 2,966g)과 거의 비슷한 수준이었다.

외식 소비는 가구당 12만 5,423 엔(3.3% 감소)으로 감소했으나, 외식 초밥 소비지출액은 1만 3,233 엔(3.7% 증가)으로 회복했다. 초밥 지출액은 2019년 지출액인 1만 4,886 엔보다는 적었으나, 2021년 수산물 부문 중에서는 유일하게 지출이 증가한 부문이었다.

* 기사 출처: 일간수산경제신문, 2022년 2월 9일자



러시아, '21년 노르웨이에 수산물 1억 달러 이상 수출 관계자 "러시아 위기로 큰 타격을 받진 않을 것"

노르웨이 수산물 판매 기구인 Norges Rafisklaget에 따르면, 올해 첫 7주 동안 해외 선단에서 총 7,848톤의 어획물이 노르웨이에 양륙되었으며, 가치로 환산하면 약 1억 4,800만 크로네(1,670만 달러)이다.

2021년 한 해 동안 10만톤 이상의 러시아산 수산물이 노르웨이에 판매되었으며 가치로 환산하면 약 13억 크로네(1억 4,710만 달러)이다.

노르웨이 북부에 양륙되는 어획물의 대부분은 가공되어 타 시장으로 수출되지만, 일부는 국내 시장에 남아 주로 건어물류로 판매된다.

노르웨이 건어물 공급업체 More Cod의 Helge Aarseth CEO에 따르면 러시아산 수산물 수입량은 최근 수년간 감소 추세이다.

노르웨이 가공·수출업체 Jangaard Export의 Gunnar Haagensen 사장은 현재 많은 생산업체들이 대구, 북대서양대구를 비롯한 상당량의 수산물 재고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노르웨이가 러시아산 수산물 수입 중단을 선언해도 업계에 심각한 타격은 아닐 것이라고 말했다.

Jonar Gahr Store 노르웨이 총리와 Anniken Huitfeldt 외무장관은 러시아에 대한 보이콧이 노르웨이-러시아 간 어업 협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러시아산 수산물의 노르웨이 양륙에 심각한 물류적 문제는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 기사 출처: Intrafish, 2022년 3월 1일자

MSC, 강제 및 아동 노동 감사 대상 확대 추진

저위험 국가 면제 조항 삭제 추진

해양관리위원회(MSC)는 올해 새로운 MSC 노동 방침 및 절차 문서를 발표하고 이해 관계자에게 의견을 요청했다.

MSC는 현재 유통인증(CoC) 상 노동 요구사항을 모든 국가로 확장할 것을 제안하고 저위험 국가에 대한 면제 조항 삭제를 원한다. 아울러 업체들이 노동 전제 조건을 공급망 파트너들에게 제시할 시 이를 단순화하는데 도움이 되길 원한다. 노동 방침은 MSC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지원자의 적격성을 결정하는 데에도 사용될 수 있다.

현재 MSC는 CoC 인증 소유자에게 3자 감사 또

는 자체 평가 완료·MSC의 감사 위임을 요구하고 있다. 이는 공급망에서의 심각한 노동 관행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현재, 저위험으로 간주되는 국가(SA8000의 국가 위험 평가 절차, 미국 노동부 품목 리스트와 같은 4개 지표에서 2개 충족)에서 전적으로 운영되는 사업의 경우 강제노동 관련 요구사항이 면제된다. MSC는 2022년에 이러한 요구 사항을 모든 공급망 회사에 적용시킬 것을 제안하고 있다.

* 기사 출처: Atuna, 2022년 2월 25일자



머스크 “中 수산물 주요 항구 혼잡 다소 완화”

美-유럽 인력 부족, 브렉시트 문제 등 여전히 과제

세계 최대 해운기업 중 하나인 머스크(Maersk)의 수산 화물 글로벌 책임자인 Thue Barfod에 따르면, 지난 2년간 수산물 운임을 치솟게 만든 원인 중 하나인 중국 항만 혼잡이 조금씩 완화되고 있다.

Barfod는 중국 다롄, 칭다오 항구의 1차 수산물 가공 센터의 위기가 아직 완전히 해소되지 않았으나 다소 상황이 나아졌다고 말했다.

한 중국 수산물 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컨테이너 상황이 이전보다 좀 더 여유로워졌다”라고 전했다.

최근 다롄항은 거의 2년 만에 러시아의 냉동컨테이너(리퍼)선 입항 허가를 재개했으나, 쑹허시에 위치한 주요 수산 가공 지구는 11월부터 계속 폐쇄된

상태이다. 중국 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업체들이 현재 지방 당국의 승인을 기다리는 중이다.

중국 외에는 미국, 특히 캘리포니아 롱비치 항구가 문제가 되고 있다. 가장 적체가 심하던 시기에는 롱비치 항구에 100척 이상의 선박이 대기하기도 했으나 현재는 대기 선박이 평균 60~70척으로 감소했다. 미국 측이 현재 마주한 가장 큰 문제는 항만 노동 인력이 부족해 화물을 처리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유럽과 영국도 트럭 운전자 인력 부족이 심각해 하역 및 운송 프로세스가 지체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 기사 출처: Intrafish, 2022년 2월 25일자

머스크, 러시아 오가는 컨테이너선 올스톱

ONE, MSC 등 글로벌 해운사도

세계 최대 해운그룹 머스크(덴마크)가 러시아를 오가는 모든 컨테이너 선박 운항을 잠정 중단한다고 1일 밝혔다.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에 대해 미국과 유럽 등 서방이 내놓은 초고강도 제재안 이후 나온 대응 조치다.

앞서 싱가포르 선사 오션네트워크익스프레스(ONE), 독일 선사 하파그로이드, 스위스 선사 MSC도 비슷한 조치를 내놓았다.

하지만 식품, 의약품, 인도주의 물품을 실은 컨테이너 선박은 예외라고 머스크는 덧붙였다. 머

스크는 성명을 통해 "우리 선박 운항의 안정성과 안전은 이미 제재의 직간접적 영향을 받고 있다"며 "러시아를 오가는 머스크 선박 예약은 잠정 중단될 것"이라고 밝혔다.

머스크 선박이 운항하는 선박은 러시아에서 발틱해의 상테페르부르크와 칼리닌그라드, 흑해의 노보로시스크, 동부 해안의 블라디보스토크와 보스토치니를 오간다.

* 기사 출처: news1, 2022년 3월 1일자



타이유니온 “식물 기반 수산물 선두주자 목표”

글로벌 혁신센터 역량, 식물기반 제품 R&D에 집중

타이유니온이 식물기반 수산 대체식품 부문의 선두주자 지위를 목표로 박차를 가하고 있다.

타이유니온은 2016년 3억 바트(약 920만 달러)를 투자해 확장한 글로벌 혁신센터의 역량을 식물기반 제품 R&D에 집중시켰다.

해당 센터의 대체 단백질 부서 책임자로 네슬레 마케팅·R&D 담당 임원으로 20년 이상 재직한 Maarten Geraets가 영입되었다. Geraets는 인터뷰를 통해 “타이유니온은 식물기반 제품의 선두주자가 되기로 결정했다”라며 “세계 소비량의 약 60%를 차지하는 아시아에 R&D 센터를 설립해 이점을 얻었다”고 말했다.

해당 전략의 핵심은 타이유니온의 대체 수산물에 대한 계약 제조 서비스 제공이다. Geraets는 타이유니온이 이미 신규 주문을 받았으며 곧 미국에 자체 브랜드 상품을 보낼 것이라고 말했다.

Geraets는 타이유니온이 근시일 내로 대체 새우를 판매할 계획이며, 현재 콩·밀 혼합 대체 참치 개발을 연구 중이라고 밝혔다. 해당 대체 참치는 일반

참치보다 다소 비싸지만 타 식물기반 제품보다는 저렴한 것으로 알려졌다.

타이유니온은 지난해 태국에서 ‘OMG Meat’를 출범하는 등 자체 식물기반 수산식품 브랜드의 마케팅을 시작했다. 해당 브랜드의 초기 제품으로는 게맛, 생선맛 슈마이(딤섬의 일종)와 너겟 등이 있다.

Geraets는 세계적으로 지속가능 대체 수산식품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며, 세포기반 조개류 제품을 생산하는 싱가포르 식품테크 기업인 Shiok Meat와 같은 경쟁자들이 있다고 설명했다.

미국 비영리단체인 Good Food Institute의 데이터에 따르면 대체 육류가 미국 전체 육류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4%에 불과하며, 대체 수산물은 0.1%로 그보다 훨씬 비중이 적다. Gereats는 대체 수산물 시장이 대체육류 시장보다 약 8년 정도 뒤쳐져 있으며, 완전히 새로운 부문을 개척 중이라고 말했다.

* 기사 출처: Seafoodsource, 2022년 2월 16일자,
닛케이아시아, 2022년 1월 30일자

보스톤 수산 박람회, 코로나19 방역 조치 없이 개최

최초로 마스크 없는 수산 박람회

세계 3대 수산 박람회 중 하나인 북미 씨푸드 엑스포/북미 가공 씨푸드(Seafood Expo North America/Seafood Processing North America) 행사가 3월 15일부터 17일까지 보스

턴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보스턴시 당국은 3월 5일부터 실내 입장 시 예방접종 증명 제출과 마스크 착용을 해제했다.

* 기사 출처: Atuna, 2022년 3월 4일자



페루 '21년 11월 수산물 수출 감소

오징어 수출액 2,690만 달러

페루 생산부 발표에 따르면 페루의 2021년 11월 수산물 수출량은 약 4만 4,700톤, 수출액은 1억 1,820만 달러로, 각각 2020년 동월 대비 37%, 18% 감소했다.

생산부에 따르면 인간직접소비(DHC, 식용) 수산물의 수출 감소(수출량 2만 8,500톤(50% 감소), 수출액 8,490만 달러(28% 감소))가 주된 원인이다. 페루의 11월 DHC 수산물 수출 중 87.1%는 냉동, 6.9%는 통조림, 나머지는 절임 제품이다.

생산부에 따르면 냉동제품 수출량은 2만 3,700톤(54.4% 감소), 수출액은 7,390만 달러(31.3% 감소)이다. 오징어와 새우 수출액은 각각 2,690만 달러, 1,870만 달러이다. 국가별 수출 비중은 미국 24.2%(17만 8,000 달러), 스페인(20.2%), 중국(14%), 일본(6%), 한국(5.8%), 태국(5.6%)이다.

통조림 제품 수출은 1,600톤(31% 증가), 580만

달러로 2020년 대비 증가했다. 이는 참치캔 제품 수출 증가가 주원인이다. 통조림 제품 수출액은 미국 16.9%(98만 2,000 달러), 스페인(15.9%), 영국(12.5%), 파나마(7.6%), 베네수엘라(6.4%)이다.

인간간접소비(IHC) 제품의 수출은 수출량 1만 3,200톤(11.5% 증가), 총 수출액 3,040만 달러(31.1% 증가)로 증가했다. 하지만 IHC의 양대 수출 품목인 어분, 어유의 수출은 수출량 각각 5,500톤(15.6% 감소), 2,700톤(23.3% 감소), 수출액 각각 880만 달러(3.6% 감소), 620만 달러(19.1% 감소)로 감소했다.

올해 11월까지 페루의 2021년 수출량 누계는 239만톤(70% 증가), 수출액 33억 8,000만 달러(33%)로 대폭 증가했다.

* 기사 출처: Undercurrent News, 2022년 2월 18일자

FisheryProgress, FIP 인권정책 요구사항 완화

인권 행동강령 서명 대신 성명 발표로 대체

FisheryProgress는 3월 1일 인권 및 사회적 책임 정책 수정판 1.0을 발표했다. 해당 수정판에서는 FisheryProgress 인권행동강령에 서명해야 한다는 요구사항이 제외된 대신, 2023년 3월 1일부터 인권과 노동권을 존중한다는 약속을 요약한 공약 성명이 있어야 한다. 성명은 4월 FisheryProgress가 제공할 템플릿을 따라야 한다.

또한, FIP가 어업자에게 FisheryProgress 인

권행동강령을 알리도록 하는 대신, 어업자 측에서 선원들에게 인권행동강령 중 노동권에 관련된 내용을 반드시 통지해야 하는 것으로 변경되었다. 어업자는 선원의 자유에 관련된 내용을 포함한 몇 가지 중점적 사항을 선원들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설명해야 한다.

* 기사 출처: Atuna, 2022년 3월 4일자



대서양대구·갈고리흰오징어 북극해서 발견

대구 북극 생존 가능성 제기

과학 저널 Science Advanced에 발표된 연구에 따르면 대서양대구와 오징어가 통상적인 경우보다 더 북쪽에서 발견되었다.

북극 국제공동연구 프로젝트인 'MOSAic' 원정대의 과학자들은 독일 연구 쇄빙선 Polarstern를 통해 북극해를 탐험하던 중 심해에서 대구와 오징어를 발견했다.

때문에 스톡홀름대학 연구팀이 수심 350~400미터 심해에서 대형 어류 4마리가 잡힌 것은 매우 예상외의 일이었다. 특히 이 중 3마리는 해안선에서 최소 500km 떨어진 북극에서 발견되지 않는 것으로 알려진 대서양대구였다. 과학자들은 또한 심해 카메라를 통해 북극에서 살지 않는 것으로 알려진 대서양 갈고리흰오징어(Armhook Squid), 랜턴피

쉬(lanternfish) 등도 발견했다.

분석 결과 이 대구는 노르웨이 산란지에서 왔으며 북극해에서 6년간 산 것으로 나타났다. 스톡홀름대 해양생태학 교수 Pauline Snoeys Leijonmalm은 “이번 연구는 대서양대구가 북극해에서 충분히 생존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며 “소수 개체들이(북극해에서) 오랫동안 건강을 유지할 만큼 충분한 먹이를 발견한 것으로 추측된다”라고 말했다.

대구 수 마리를 발견했음에도 불구하고, 연구진은 북극해에 서식 중인 대구의 양이 어업할 수 있는 수준은 아니라고 결론지었다. 연구진은 오히려 이들이 남극 대륙과 마찬가지로 국제적 보존조치를 받아야 하는 취약 생태계라고 강조했다.

* 기사 출처: European Scientist, 2022년 2월 21일자

日 2021년 고등어 수출 17만 6,690톤

단가 kg당 124 엔

일본 수산물 수출 전체의 26.8%를 차지하는 어종인 고등어는 최근 근해 어획 부진, 어체 소형화, 높은 어가 등으로 성장세가 다소 주춤해졌다. 그러나, 지난해 수출량은 17만 6,690톤(3%), 수출 단가 kg당 124 엔으로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했다.

수출이 증가세를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은 나이지리아, 가나, 코트디부아르, 르완다 등 아프리카

국가 수출이 6만톤 가까운 수준으로 증가했기 때문이다.

일본의 수출 대상국은 10년 전 24개국에서 '21년 37개국으로 확대되었다. 현재 세계적으로 고등어 수요가 증가 추세이기 때문에, 공급만 원활하다면 수출 확대 기회는 충분할 것으로 전망된다.

* 기사 출처: 일간수산경제신문, 2022년 2월 24일자



주머니 속의 바다

정 일 근

그 마을 사람들은 바다를 주머니에 넣고 다닌다
 설마? 하고 물어보면 불쑥 주머니 속의 바다를 꺼내 보여준다
 놀라지 마라, 그것은 마을의 아주 어린 꼬마 녀석도 할 수
 있는 일이다

제법 사랑을 아는 나이가 된 친구들은 사랑으로 외롭거나
 쓸쓸할 때에는 손바닥 위에 바다를 올려놓고 휘파람을 분다
 아무래도 마을 어른들은 한 수 위다

흰 손수건인가 싶어 보면 어느새 하얀 갈치 떼로 변하고
 손금 위로 바다를 흐르게 하고 흐르는 바다 위에 섬을 띄운다
 아주 오래 전 그 섬을 찾아가 돌아오지 않는 사람들의 안부
 까지 전해준다

떠나오던 날 마을 사람들이 주섬주섬 챙겨 선물로 건네주던 바다
 읽다만 시집 속에 곱게 접어온 바다

삶에 지칠 때, 누군가가 아득히 그리울 때

나는 손바닥에 그 바다를 올려놓는 놓고 엽서를 쓴다

아침이면 사람과 함께 바다

저녁이면 사람과 함께 잠드는 바다

사람과 한 몸이 되어 살아가는 바다를 나는 알고 있으니





해적 피해 다발지역, 안전조치 없이는 진입 불가 2.18.(금), 해적피해예방법 및 하위법령 개정 시행

해양수산부는 『국제항해선박 등에 대한 해적행위 피해예방에 관한 법률(이하 ‘해적피해예방법’)』 개정안이 2월 18일(금)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우리나라와 국제사회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서아프리카 해역에서 우리 선원들이 해적에 의해 납치되는 사건이 발생하는 등 서아프리카 해역을 중심으로 해적사건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해적예방대책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안전조치를 강화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지난해 8월 『해적피해예방법』을 개정하였고, 하위법령 개정 등 6개월 동안의 준비과정을 거쳐 2월 18일(금)부터 『해적피해예방법』을 시행하게 되었다.

이번에 시행되는 개정 법령에서는 우선 해적행위나 해상강도행위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어 선박, 선원 등의 안전에 상당한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는

해역을 위험해역으로 규정하고, 위험해역 중 해적에 의한 피해가 많이 발생하는 지역을 고위험해역으로 지정하도록 했다. 고위험해역에는 해상특수경비원을 승선시키는 등의 안전조치를 이행한 선박만 진입할 수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또한, 해양수산부는 이번 법령 개정을 통해 선박 내에 선원의 대피처를 설치하였는지에 대한 확인·점검에서 나아가 선사나 선장의 해적피해 예방요령 이행, 자체적인 해적피해 예방대책 수립, 비상교육 훈련 실시 여부 등도 확인하고 점검할 계획이다. 아울러, 우리 선박에 승선하는 외국 해상특수경비업체로 하여금 반드시 우리나라에 사무소나 분소를 설치하고 적격성 심사를 받도록 하는 등 외국 해상특수경비업체에 대한 관리를 강화할 예정이다.

따뜻한 봄바람, 우리 수산물과 함께 하세요 3.10(목)부터「대한민국 수산대전-3월 봄맞이전」개최

해양수산부는 수산물 소비를 촉진하고 수산물 가격 안정세를 유지하기 위해 3월 10일(목)부터 3월 27일(일)까지 18일 동안 “2022년 대한민국 수산대전 - 3월 봄맞이전”을 개최한다. (오프라인: 3.10(목)~23(수), 온라인: 3.14(월)~3.27(일))

행사 품목은 오징어, 고등어, 명태, 갈치, 조기(굴비), 마른멸치 등 대중성어종 6종과 코로나19로 가정 소비가 증가한 포장회(우럭, 광어)이다.

특히, 러시아 의존도가 높은 명태 가격이 우크라이나 사태 이후 소폭 상승함에 따라 이번 행사

등을 통해 소비자 부담이 증가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할 예정이다.

이번 행사는 이마트, 홈플러스, 롯데마트, GS리테일, 이마트트레이더스 등을 포함한 오프라인 12개사와 SSG.com, 쿠팡, 위메프 등 21개 온라인 쇼핑몰이 참여한다.

해양수산부는 1인당 1만원 한도로 20% 할인을 지원하며, 참여 업체의 자체 할인을 더해 소비자들은 품목별로 최대 40%까지 할인된 가격에 행사 품목을 구매할 수 있다.



3월 이달의 수산물로 참치, 명게, 미더덕을 선정 해수부, 보도자료 배포 등 소비촉진 나서

해양수산부는 3월 이달의 수산물로 참치, 명게, 미더덕을 선정했다.

바다의 귀족이라 불리는 참치는 ‘참 좋다’라는 의미로 참 진(眞)을 써 ‘진치’로 불리다가 진(眞)을 한글로 바꿔 ‘참치(또는 다랑어)’로 부르게 되었다고 한다. 참치는 주로 회로 즐기는데 다른 회처럼 초고추장에 찍어 먹는 것도 좋지만, 간장에 고추냉이를 곁들여 먹는 것을 추천한다. 참치의 대부분은 고단백, 저지방 식품으로 다이어트와 근육 생성과 유지에 도움이 되고, 다량의 필수 아미노산이 포함되어 있어 피로 회복과 간 기능 개선과 면역력 향상에 도움을 준다.

특유의 맛과 향이 매력적인 명게는 회로 초고추장에 찍어 먹거나 비빔밥으로 먹으면 맛이 일품이다. 명게는 타우린과 베타인 성분을 많이 함유하고 있어 콜레스테롤을 낮추고, 혈압 강하, 인슐린 분비 촉진 등의 효과가 있어 고지혈증, 고혈압, 당뇨 등 성인병 예방에 도움이 된다.

또 다른 이달의 수산물로 선정된 미더덕은 칼슘과 철분이 풍부하여 골다공증과 빈혈 예방에 도움이 되며, 특히 강력한 항산화력을 자랑하는 셀레늄을 다량 함유하고 있어 체내 활성산소를 제거하여 노화를 방지하고 면역력을 증진하는 데 도움이 된다.

수산물 원산지 미표시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기준 강화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해양수산부는 3월 8일(화) 국무회의에서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하고, 상습적으로 수산물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거나 표시 방법을 위반한 업체 등에 대한 과태료 처분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해 수산물 원산지 미표시 및 표시 방법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처분 기준을 강화한다.

또한, 위반 이력 관리 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늘린다. 이전까지 원산지 미표시 행위 등을 반복

하여 적발되더라도 1년 이내에만 반복해 적발되지 않으면 과태료를 가중해서 부과하지 않았지만, 앞으로는 해당 위반행위가 2년 이내에 반복하여 적발될 경우 과태료를 가중해서 부과한다.

그 외에도 위반 내용이나 정도가 중대해 이해관계인 등에게 큰 피해를 주는 경우 등에는 과태료를 2분의 1까지 가중하여 부과할 수 있도록 과태료처분 기준을 강화했다.

이번 국무회의에서 통과된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해양 플라스틱 오염 문제 해결 위해 각국 머리 맞댄다 제5차 유엔환경총회에서 플라스틱 오염에 관한 국제협약 결의안 채택

해양수산부는 2월 28일(월)부터 3월 2일(수)까지 3일간 진행된 제5차 유엔환경총회 2부 회의에서 국제사회는 해양환경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플라스틱 오염에 관한 법적 구속력 있는 국제협약을 마련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합의는 그 동안 해양플라스틱 쓰레기 문제 해결을 위한 유엔환경총회의 결의안들과는 다르게 그 범주를 '해양'에 국한하지 않고, 발생부터 수거, 재활용까지 플라스틱 쓰레기의 전주기적(full lifecycle) 관리를 핵심으로 하는 구속력 있는 협약을 제정하기로 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이 결의안은 정부 간 협상위원회를 구성해 협약을 구체화하고 2024년까지 협약을 마련하겠다는 세부 실행방안을 담고 있다.

2018년 제3차 유엔환경총회, 지난해 9월 '해양폐기물 및 플라스틱 오염에 관한 장관급 협의회' 등 그 동안 국제사회에서는 해양플라스틱 저감을 위한 협약 체결 움직임이 가시화 되고 있었다. 이러한 동향에 발맞춰 우리 정부는 지난해 12월, 범부처 해양

폐기물 관리위원회에서 협약 제정 필요성에 동의하는 우리나라 입장을 정리하고, 페루·르완다에서 제출한 플라스틱 오염 협약 결의안에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하기도 하였다.

유엔환경총회 결의에 따라 플라스틱 오염에 대한 구속력 있는 협약이 제정되는 것은 물론이고, 플라스틱의 생산·유통, 소비, 처리, 재활용 등 전주기 관리를 위한 국제 규제가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정부는 해양플라스틱 저감 종합대책('19), 제1차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 기본계획('21) 등 2050년까지 해양플라스틱 쓰레기 제로화를 실현하겠다는 것을 목표로 수립한 국가 종합대책을 바탕으로, 해양폐기물 저감 정책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플라스틱 국제협약 제정 논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계획이다. 또한, 해양수산부는 범부처 해양폐기물 관리위원회를 통해 플라스틱 쓰레기 문제 해결을 위한 국내 대책과 협력방안을 발굴하고, 정부 간 위원회 구성과 구체적 협약 내용에 대응할 계획이다.

제20대 대선 선상 투표율 95%

3,267명 중 3,108명 참여

제20대 대통령선거 선상투표에 3,108명이 참여해 95%의 투표율을 보였다.

3월 1일부터 4일까지 치뤄진 제20대 대통령선거 선상투표는 사전투표일 또는 선거 당일에 외항상선 및 원양어선 승선으로 국내에서 투표할 수 없는

선원들을 대상으로 한다. 선관위는 이번 선상투표를 위해 지난달 9일부터 13일까지 5일간 선상투표에 참여할 선원 및 선박의 신청을 받았고, 444척의 선박에 타고 있는 3,267명이 선상투표를 신청했다.

한국원양산업협회 부서별 연락처

임원실	성명	전화번호	비고
회장	윤명길	589-1600	
상무	신현애	589-1602	해외협력본부장
이사	이형균	589-1603	경영지원본부장
비서(주임)	조한솔	589-1601/1621	비서, 출납업무

부서	성명	전화번호	담당
경영지원본부	강성현 부장	589-1604	총괄
	공길웅 과장	589-1605	총무, 자금
	조성환 과장	589-1606	사무관리, 차량운영
	이형균 이사	589-1607	총괄(겸직)
	김영수 과장	589-1608	기획, 홍보
	김민재 사원	589-1609	원양뉴스, 생산통계
	소기동 부장	589-1610	총괄
	김효상 과장	589-1611	무역제도, 수출통계
	최상진 사원	589-1619	노사, 선원

부서	성명	전화번호	담당
해외협력본부	신현애 상무	589-1612	총괄(겸직)
	최봉준 과장	589-1613	국제협력
	백상진 주임	589-1614	참치선망
	김태호 사원	589-1615	참치연승
	진호정 부장	589-1616	총괄
	조성주 과장	589-1617	복양, 품치
부산지부	최동환 주임	589-1618	오징어, 기타트롤
	이성재 이사	(051) 253-3388	총괄
	김현애 과장		확인업무(수출,반입등)
	공인계량소	이동주 팀장 051) 253-3391	차량계량
		최광준 팀장	차량계량

해외수산물협력센터(세종)	센터장실	-	044-868-7360	협력센터 총괄	원태훈 전문관	044-868-7831	일반/지역수산물기구
	기획운영팀	이희진 팀장	044-868-7834	행정총괄, 명예수산물관	김수민 전문관	044-868-7363	일반/지역수산물기구
		정수진 행정관	044-868-7837	OFIS, 해외수산물투자, 행정	김선경 전문관	044-868-7833	對 일본 업무
	국제협상지원팀	양재걸 전문관	044-868-7364	일반/지역수산물기구	서규혁 행정관	044-868-7836	ODA
					윤유정 행정관	044-868-7838	통계, 협의회

■ 협회 홈페이지 : www.kosfa.org ■ 팩스번호(서울) : 02-589-1630/1, (부산지부) : 051-253-3392, (해외수산물협력센터) : 044-868-7840

명예해양수산물 연락처

담당지역	성명	연락처
사모아	오시영	1684-258-9900 syoh_2@hotmail.com
피지	김종태	679-330-7188 ckpfj@naver.com
페루	이호상	51-1-454-6394 asia@asiamaritima.com
인도네시아	이재원	62-21-8660-6278 imsindo@hanmail.net
가나	이운홍	233-22-300772 skshipafrica@yahoo.com
세네갈	김점봉	221-33-853-0850 senegalkim@gmail.com
뉴질랜드	윤정환	64-3-344-1617 seajho@xtra.co.nz
미얀마	변경대	95-92-6204-1339 kevinbyun61@naver.com
파푸아뉴기니	정승화	675-321-8137 jc651016@gmail.com

해외협력자문위원 연락처

담당지역	성명	연락처
남아공	조창원	27-21-447-1634/1515 saka0505@naver.com
수리남	박권현	597-42-2185 donghee_sur@yahoo.co.kr

원양산업 제1143호

발행처

특수법인

한국원양산업협회

서울특별시 서초구 논현로 83 (양재동, 삼호물산B/D A동 6층)

발행인

윤명길

편집인

발행 : 2022년 3월 15일
등록일자 : 1981년 8월 27일
등록번호 : 서울라-9183호 / **간별** : 월간

당신과 가족의 건강을 지켜드립니다.



현명한 주부는 원양산 생선을 좋아해~

【원양산과 수입산 구별 요령】 원양산은 원산지 표시를 「원양산」 또는 「원양산(해역명)」으로 표시하므로 '원양산' 표기 여부를 확인하면 된다. <사례 : 원양산 또는 원양산(대서양)>

통조림용 참치조림 장면

원양생선은 우리나라 어선이 잡는 즉시 선상에서 위생적으로 냉동처리하기 때문에 수입수산물과는 달리 유통과정에서 변질되거나 오염될 가능성이 적어 안심하고 드실 수 있습니다.



참 치 회

DHA, EPA, 셀레늄이 풍부



참치통조림

심장병 등 성인병 예방



오징어

피로회복 성분,
타우린 다량 함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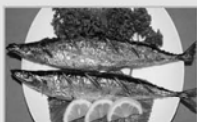
명 태

칼슘과 단백질이 풍부



조기류(민어과)

제수용 생선으로 제격



공 치

불포화지방산 다량 함유

원양산 생선을 수입산과 동격 취급 마세요!



◎ 원양산 생선이 수입산보다 왜 좋을까?

01

내국물품 (우리 어선이 잡은 생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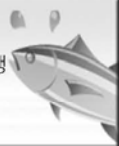
원양산은 우리나라 어선이 외국 원양 수역이나 해외 공해상에서 잡아 직접 국내로 들어오는 생선이기 때문에 연근해산과 마찬가지로 내국 물품에 해당한다. 반면 수입산은 외국물품으로 관세가 부과된다.



02

오염우려 없는 친환경 생선

원양산은 대부분 청정해역이나 오염이 되지 않은 대양에서 안전한 위생 기준(HACCP)에 의해 생산되어 식품안전성이 수입산과 달리 뛰어납니다.



03

선상급랭 시설을 통한 우수한 신선도 관리

우리나라 원양어선들은 선상급랭 시설이 매우 우수해 어획 즉시 선상에서 곧바로 급랭하여 국내로 반입되기 때문에 수입산에 비해 신선도가 훨씬 뛰어납니다.

